발 간 등 록 번 호
서울교육 2026-108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그림책 함께 읽기로 보육과정 실행하기

1. 영아 편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목차

자료집 구성 체계 5
여는 말 9

1. 실물로 그림책을 읽는다 17
찾았다! 사과* 〈사과가 쿵!〉 19
정말 똑같아. 그런데 이상해! 〈과일〉 25
내가 책에서 골랐던 거야 〈빠이빠이 기저귀!〉 29
책에서 본 상자를 교실에서 만나다* 〈이건 상자가 아니야〉 33
그림책이랑 똑같아! 〈개미의 수박 파티〉 39

2. 그림책 인물처럼 해봐요 45
몸짓으로 읽어요* 〈찾았다, 우리 아기〉 47
맥스처럼 해 볼래요* 〈아트와 맥스〉 53
나처럼 움직여 봐! 〈간질간질〉 63

3. 그림책으로 마음을 나누어요 73
우리도 친구 〈우리는 친구〉 75
너랑 같이 보고 싶어 〈우리집에는요〉 79
꼭 안아 줄 시간 〈엄마가 화났다〉, 〈사랑해 꼭 안아 줄 시간〉 83

4. 그림책이 세상과 만나다* 87
그림책이 퍼뜨린 눈길 〈동글동글 동그라미책〉 89
동그라미로 가득한 세상 〈까망아, 안녕?〉 95

5. 말놀이하며 함께 그림책을 읽어요 103
"까꿍! 띵똥! 까꾸뽀꾸!"〈아주아주 배고픈 애벌레의 숨바꼭질 놀이 눈 오는 날〉 105
"이거 뭐야?" 〈날씨가 좋아〉 111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소리 만들기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그림책〉 117

6. 그림책으로 이야기 짓기를 할 수 있어요 123
괴물 이야기 〈괴물이 오면〉 125
말하고, 오리고, 끼적이고, 또 말하며 만드는 이야기 133
〈성질 좀 부리지 마, 닐슨!〉, 〈감정의 구급상자 컬러 몬스터〉
"선생님, 내가 그림책 만들어 줄게" 143

부록
1. 교수·학습 자료 147
2. 그림책 추천 목록 149
3. 동영상 목록 159
4. 부모교육 카드 뉴스 163
5. 그림책 관련 누리집 167
6. 서울시 어린이도서관 목록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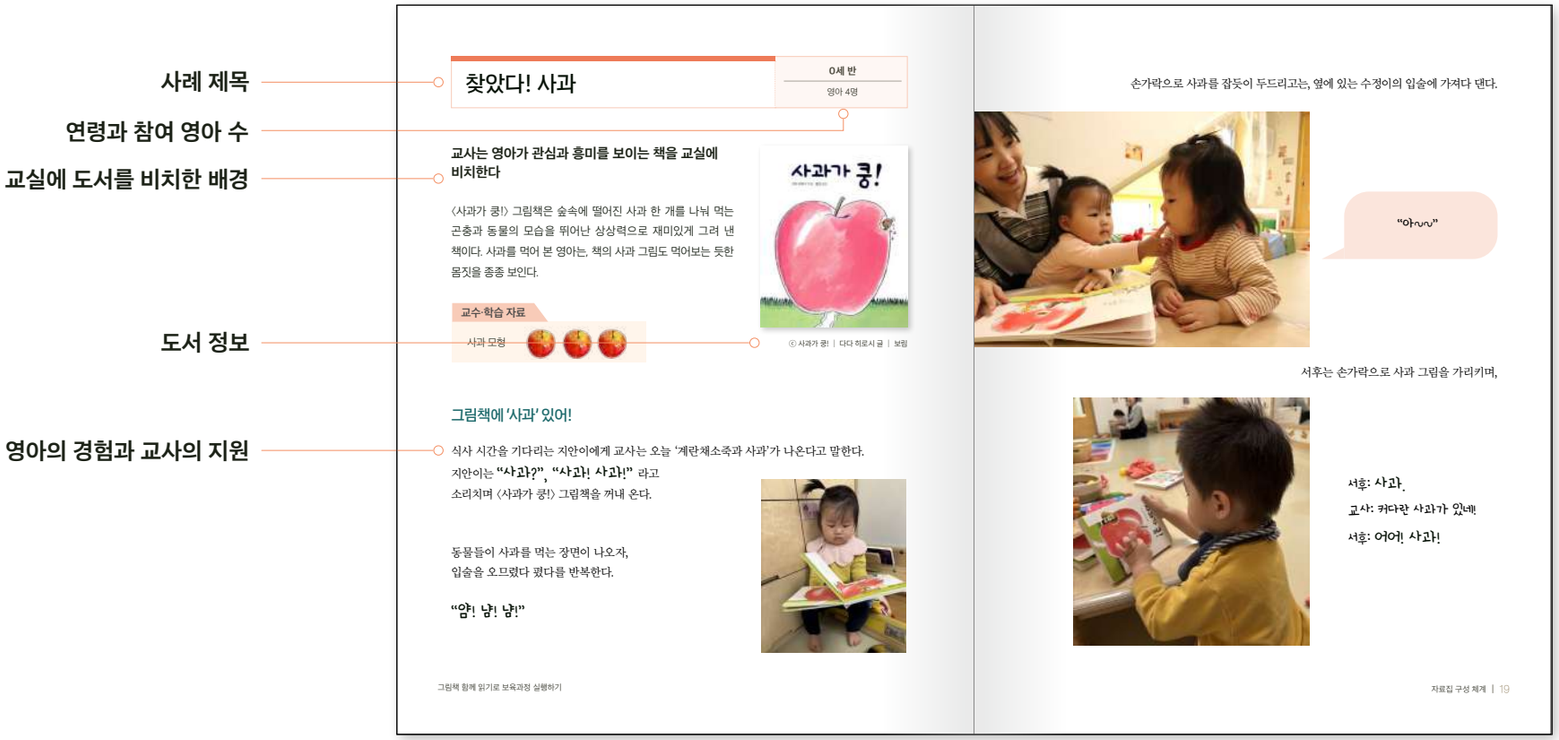
* 실물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료집 구성 체계

이 자료집은 그림책이 단순한 '읽기 자료'를 넘어, 영아의 놀이가 되고 배움으로 이어지는 생생한 과정을 담고 있다.

모든 사례에는 그림책을 매개로 소통하고, 교사가 영아에게 귀 기울여 배움을 이해하며 지원하는 여정이 담겨 있다.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그림책 놀이를 실천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포착하며, 영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한다.



자료집 구성 체계

그림책 추천사

선정된 그림책의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가치에 대한 전문가 또는 연구진의 글

영아의 배움

- 영아 놀이 경험을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결하여 배움을 이해하며, 특히 책읽기와 관련한 배움을 중심으로 기술
- 놀이 경험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영아의 배움을 기술

그림책은 영유아의 삶과 사유를 확장하는 작은 세계이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밀접하게
상호작용 하여 의미를 만드는 예술 형식이자,
언어와 미술이라는 두 소통 체계가 결합된 독창적인 매체이다.
글과 그림, 여백이 어우러져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만,
글과 그림이 각각의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림은 글을 보완하지 않고, 글은 그림을 설명하지 않는다.
두 요소는 나란히 놓여 독자가 보고, 느끼고, 해석하도록 초대한다.
그림책은 완결된 메시지가 아니라 열려 있는 의미의 장이다.

그림책의 이미지, 색, 리듬, 여백은 감각에 닿아 이해하기 보다, 느끼는 방식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그림책은 영유아에게도, 교사에게도 각기 다른 깊이로 말을 건다.

그림책은 감각과 사유를 동시에 깨운다.
색과 형태, 리듬은 감각을 열고, 이야기와 상징은 생각을 부른다.
이 두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림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 생각이 자라날 시간을 만든다.
그림책은 영유아에게 여백을 남겨 준다.
한 장면에 머물고, 되돌아가고, 다른 해석을 허용하는 구조는 정답보다 질문과 상상을 존중한다.

그림책은 함께 읽는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낸다.
함께 읽는 시간 속에서 교사는 영유아의 속도에 귀 기울이고, 영유아는 교사의 존재 안에서 세계를 탐색한다.
그림책은 '가르치는 자-배우는 자'가 아니라 함께 세계를 바라보는 존재를 만들어 낸다.

그림책은 삶의 감정을 안전하게 다룬다.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상실 같은 복잡한 감정이 이야기에 담겨,
독자는 자기 경험을 비추어 보고 다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림책의 의미와 가치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았느냐가 아니라,
영유아와 교사가 얼마나 깊이 머물고, 오래 기억하고, 다시 이야기하느냐에 있다.

그림책은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삶과 사유를 천천히 확장하는 작은 세계이다.

그림책은 영아가
배움을 만드는 장이다

영아에게 그림책이란,
세상과 만나는 '하나의 경험'이다.

영아는 그림책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소리로 듣고,
정서로 느끼는 감각적 놀이를 하면서, 자신과 세계를 연결하는 경험을 하며 앎의 장을 열어 간다.
이때 배움이 만들어진다.

영아는 그림책에서 색과 형태, 사물과 인물, 반복되는 리듬으로 친숙한 세상을 찾으며 "아, 이건 내가 아는 세계야."라는 안도감과 확신을 가진다. 한편 그림책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물, 인물, 형태 등을 발견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배움이 커진다.

영아는 그림책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림, 말, 이야기에 감각적으로 반응하며 세상과 만난다. 내 주변의 사물이 그림책 속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책 속의 사과, 인형, 상자 등을 실제 주변에서 찾아오거나 가리키기도 한다. 영아는 눈으로만 그림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책 속 인물처럼 표정을 짓고 움직이며 온몸의 감각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인다. 영아는 그림책의 그림과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며 의미를 알아가고, 경험을 확장해 간다.

영아는 그림책을 또래 그리고 교사와 함께 읽으며, '우리'가 되는 따뜻한 관계를 느끼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그러면서 그림책을 읽는 즐거움도 생긴다.

영아는 그림책에서 선호하는 그림, 시각 이미지가 생긴다.
영아는 미소를 짓고, 응시하고, 만지고, 두드리고, 소리를 내고, 그림에 다가가며, 그림책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영아는 그림의 의미를 알아 가고, 그림을 읽어간다.
영아는 소소한 그림에도 관심을 보이고, 유머를 만들기도 하며
교사, 또래와 상호작용 하면서 그림책 읽기에 익숙해져 간다.

영아는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새로운 어휘를 배우고,
그림책 속 글과 그림의 관계도 천천히 알아간다.

영아의 경험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영아는 그림책으로 세상에 더 주목하며, 세상은 그림책과 연결되고,
영아의 경험과 얽히면서, 영아의 배움은 커진다.

‘그림책 함께 읽기’는 교사와 영아가 함께 배우는 시간이다

‘그림책 함께 읽기’는 영아와 교사가 책을 중심으로 예상치 못한 다양한 만남을 만들며,
다채로운 배움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말한다.

교사는 글자를 크게 읽고, 단어와 그림에 대하여 말하고, 영아의 관심, 이해, 몰입을 도울 수 있는 소리와 몸짓을 한다.

영아는 그림을 바라보고, 크게 들리는 단어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로, 말로, 몸짓으로 소통하며,
책을 만지고, 두드리고, 가리키고, 다루면서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그림책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며, 정보와 배움을 제공한다.

그림책 함께 읽기는 교사, 영아, 그림책이 마주치며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경험에 더 주목한다.

영아의 시선에 주목하여 교사의 이야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영아가 넘기는 장으로 다시 돌아가 이야기를 하고,
영아가 가져오는 놀잇감으로 놀이를 하기도 하고,
읽기를 중단하기도 하며….

그림책 함께 읽기는 이어진다.

그림책 함께 읽기는 책을 많이 읽었는가보다는 어떻게 함께 머물렀는지가 중요하다.

교사는 영아의 시선과 손이 멈춘 장에서 읽기를 멈추고,
영아가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장면으로 기꺼이 돌아가며,
영아의 말보다 표정과 몸짓에 귀 기울인다.
그림책 읽기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책 함께 읽기는 교사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아의 해석이 태어나는 순간이다.
“이건 뭐야?” 질문을 하기보다 “여기 뭐가 보이니?” 묻거나
아무 말 없이 영아의 읽기에 고개를 끄덕여 주는 침묵이 더 필요하다.

그림책 함께 읽기에서 영아는 교사와 함께 책을 넘기는 속도, 교사 목소리의 높낮이,
눈을 마주치는 짧은 순간 속에서 ‘함께 있다’를 배운다.

그림책 함께 읽기는 서두르지 않고, 통제하지 않으며, 이야기와 함께 영아 곁에 머무는 것이다.

‘그림책 함께 읽기’에서 그림책 놀이가 시작되고, 교사의 보육과정 실행도 함께 일어난다

그림책 함께 읽기에서 영아의 그림책 놀이는 시작된다.
그림책을 읽고 나서 놀이를 하는 것보다,
그림책을 읽으면서 영아의 몸과 마음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반응을 따라가는 것이 그림책 놀이의 시작점이다.

손가락으로 그림을 짚고, 같은 장면을 반복해 넘기고,
소리를 흉내 내거나 몸을 흔드는 순간들이 놀이이다.

영아는 그림책 이미지의 사물을 찾아 먹는 흉내를 내고, 그림책 동물의 움직임을 몸짓으로 따라 하고,
이야기를 의성어, 의태어로 만들고, 또래와 함께 읽으며 유머를 나누면서 세상을 탐색한다.
영아의 그림책 놀이는 이야기와 함께 살아보는 시간이다.
영아의 배움은 다채롭다.

교사는 영아의 읽기에 호응하며 지원한다.
교사는 그림을 손으로 가리키거나, 그림 속 사물이나 전체 그림의 이름을 말해 줄 수 있다.
그림책에서 볼 수 있는 선, 색깔, 구성, 인물의 배치 등을 말해주거나,
그림의 움직임, 말과 생각 등을 설명할 수 있다.
교사의 질문, 설명, 언어적 지원은 영아가 의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림책을 함께 읽을 때 영아는 자신의 생각, 감정, 지각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는 읽기와 쓰기 배움의 기초가 된다. 교사는 영아와 함께 읽기를 하며 또래의 생각과 감정을 유추하고,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교사는 영아가 손쉽게 책을 꺼내 볼 수 있도록 교실에 비치한다.
또 책의 내용을 놀이로 연결할 수 있는 실물 자료를 함께 비치하여 지원한다.

교사는 단순히 글자를 읽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의 동행자’가 되어 편안한 자세로 함께 그림책을 본다.
이때 영아의 시선, 몸짓,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영아의 경험에 주목한다.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배움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며 함께 놀이한다.

교사는 영아의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배움을 읽고, 이를 기록하여 영아의 변화에 주목하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영아와 그림책 함께 보기~영아의 그림책 놀이~영아의 배움~교사의 배움 지원이 어우러진다.
영아의 배움 이해는 교사의 지원에도 중요한 단서가 되지만
궁극적으로 영아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인다.
영아에 대한 이해와 교사의 보육과정 실행력은 교사의 효능감과 전문성 성장으로 이어진다.

1. 실물로 그림책을 읽는다

"어~ 책이랑 똑같아."

영아는 그림책 속 그림과 일상의 실물을 연결하며
그림책을 읽는다.

그림책은 영아에게 사물이다. 영아는 그림책의 이미지를 일상의 사물과 관련짓는다. 그림책의 이미지가 실물이나 모형과 함께 제시될 때, 그림책의 이미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림책 읽기는 이미지에서 실물로, 다시 이미지로 오가며 일어난다. 그림책은 영아가 사물을 직접 '체험하는' 것과 '읽는' 경험을 이어 준다.

영아는 그림책의 이미지를 실물로 만나는 경험을 하며 몸의 감각과 움직임으로 그림책의 내용을 알아 간다. 그림책의 이미지와 실물의 질감, 무게, 온도, 소리가 함께 얽히며 영아는 그림책을 더욱 생동감 있게 즐긴다.

교사는 그림책 속 이미지가 영아의 생활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그림책에 등장하는 과일, 사물, 자연물, 생활 도구 등을 교실에 비치한다. 시각적 그림이 오감의 실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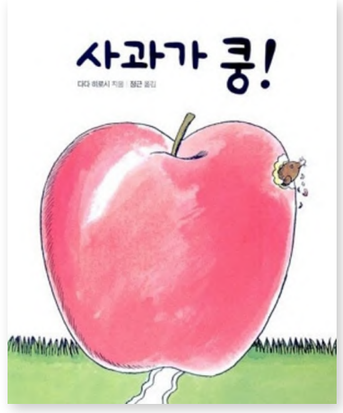
찾았다! 사과

0세

영아 4명

교사는 영아가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책을 교실에 비치한다

〈사과가 쿵!〉 그림책은 숲속에 떨어진 사과 한 개를 나눠 먹는 곤충과 동물의 모습을 뛰어난 상상력으로 재미있게 그려 낸 책이다. 사과를 먹어 본 영아는, 책의 사과 그림도 먹어보는 듯한 몸짓을 종종 보인다.



ⓒ 사과가 쿵! | 다다 히로시 글 | 보림

교수·학습 자료

사과 모형

그림책에 '사과' 있어!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지안이에게 교사는 오늘 '계란채소죽과 사과'가 나온다고 말한다.
지안이는 **"사과?", "사과! 사과!"** 라고
소리치며 〈사과가 쿵!〉 그림책을 꺼내 온다.

동물들이 사과를 먹는 장면이 나오자,
입술을 오므렸다 폈다를 반복한다.

"얌! 냠! 냠!"

손가락으로 사과를 잡듯이 두드리고는, 옆에 있는 수정이의 입술에 가져다 댄다.

"아∿∿"

서후는 손가락으로 사과 그림을 가리키며,

서후: 사과.

교사: 커다란 사과가 있네!

서후: 어어! 사과!

사과! 저쪽에도 있어!

서후는 교사의 손을 잡아당기며 현관 쪽으로 데려간다.
그러고는 현관 앞 환경 구성을 위해 놓아 둔 사과를 가리킨다.

서후: 저쪼, 저쪼!

교사: 저쪽? 어디 가고 싶어?

서후: 저쪼!

서후: 사과!

교사: 사과가 많이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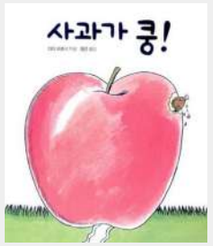
서후: 사과!

교사: 서후가 찾은 사과를 친구들에게
보여 줄까?

서후: 어어! 사과!

서후는 손에 있는 사과를 이지에게 내민다.

✦ 그림책 추천사



사과가 쿵! | 다다 히로시 | 보림

영유아 그림책의 명작! 숲속 동물 모두 와서 먹어도 걱정할 것 전혀 없는 엄청난 크기의 사과는 시각, 청각, 미각, 촉각의 활성화는 물론 아이들의 생리적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해 줍니다. 하나, 둘, 모여들어 맛나게 먹고 우산까지 되어 주는 커다란 사과 아래서 느껴지는 누적적 안도감에 누구라도 매료되지 않을 수 없겠지요?

- 신혜은 교수 -

영아의 배움

서후는 그림책 속 사과를 실물 모형과 연결하여 책과 현실을 하나의 연속된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서후에게 책 속의 그림은 자신이 감각하며 경험하는 실제이며, 서후는 그림의 이미지가 실물을 나타내는 것을 알아간다. 또한 서후는 이지에게 자신이 찾은 사과를 건네며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정말 똑같아. 그런데 이상해!

0세

영아 1명

교사는 영아에게 친숙한 사물 그림이 있는 책을 교실에 비치한다

영아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 과일, 탈것 등이 그려진 그림책을 비치한다. 일상에서 보던 것을 그림에서 보고, 그림에서 보던 것을 일상에서 찾아가는 영아의 경험에 귀를 기울여 본다.

ⓒ 과일 | 편집부 저 | 블루래빗

영아가 함께 모여서 수박을 먹는다. 수박의 향, 촉감, 맛, 소리, 색을 감각으로 느낀다.

지민이가 〈과일〉 그림책을 넘기다가 수박 그림이 나오자, 책을 이쪽저쪽 돌려 가며 입에 넣어 본다.

영아의 배움

지민이는 수박을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림책에 있는 수박 그림을 입에 넣어 보며, 그림이 수박처럼 보이지만 진짜 수박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 가고 있다.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내가 책에서 골랐던 거야

1세

영아 4명

교사는 배변 연습을 위해 도서를 비치한다

기저귀를 떼고 배변 연습을 시작하는 우리 반 영아.
즐겁게 배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그림책을 비치한다.

ⓒ 빠이빠이 기저귀! | 레슬리 패트리셀리 글 | 보물창고

서영이는 〈빠이빠이 기저귀!〉 마지막 장을 펼치고 **"이거 서영이 거!"** 라고 한다.
준기도 마음에 드는 그림을 손으로 가리킨다.

교사의 배움 지원(자료)

교사는 서영이가 그림 중에서 좋아하는 팬티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주목한다.

↓

그림책에 있는 팬티를 실물로 제공하여, 영아가 직접 입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별이가 팬티 하나를 골라서 다리와 팔의 움직임을 조절하며 혼자서 입는다.

은별이는 팬티 하나를 골라서 준기에게 입어 보라고 권한다.

은별: 우혁아! 팬티 입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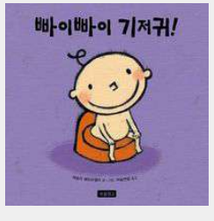
우혁이가 앉아서 팬티 구멍에 다리를 하나씩 넣고 일어나서 끌어 올리며 혼자서 팬티를 입는다.

영아의 배움

은별이는 그림책에 나오는 색깔, 무늬, 크기가 다른 팬티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안다. 은별이는 앉아서 바지에 다리를 하나씩 넣고 두 다리를 끼운 후, 일어나서 팬티를 힘껏 올리면 팬티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가고 있다. 은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친구들에게도 권하며 또래에게 관심을 표현한다. 우혁이는 앉아서 양발을 팬티에 넣고, 일어나서 힘껏 끌어 올리며 팬티를 혼자서 입는 방법을 알아 간다.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 그림책 추천사



빠이빠이 기저귀! | 레슬리 패트리셀리 글 | 보물창고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배변 훈련이 늘 조심스럽습니다. 아이마다 속도가 다르고, 작은 실패 하나에도 자존감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듯, 성공과 실패를 모두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따뜻한 그림과 반복적인 언어로 보여 줍니다. 배변 훈련의 시작과 끝을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그림책입니다.

- 연구진 -

책에서 본 상자를 교실에서 만나다

0세

영아 4명

교사는 영아의 놀이를 보며 〈이건 상자가 아니야〉를 비치해본다

우리 반 영아가 놀이자료를 담은 바구니, 기저귀를 담은 바구니를 비웠다가 다시 채우기를 즐긴다. 영아에게 바구니는 놀이자료가 된다. 영아의 놀이를 보며 〈이건 상자가 아니야〉 책을 비치한다.

ⓒ 이건 상자가 아니야 | 앙트아네트 포티스 글 | 베틀북

교수·학습 자료

다양한 크기의 종이 상자

〈이건 상자가 아니야〉 그림책을 함께 보고, 영아에게 상자를 제공한다.

교사의 배움 지원(자료)

영아가 그림책의 상자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상자를 제공한다. 이 때 다양한 크기의 상자, 한쪽이 뚫린 상자, 양쪽이 모두 막힌 상자 등 크기와 형태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책에서 본 것처럼 상자로 놀아요

지혜는 그림책을 넘기다가 토끼가 상자 안에 앉아 있는 장면에서 멈춘다. 그러고는 교실 한 쪽의 상자로 가서 들어가 앉는다.

그림책을 보던 지혜는 달려가서 상자를 머리에 써 본다.

우리도 상자로 놀 수 있어요

지성이는 상자 안에 꽃게 인형을 넣고 상자를 민다.

어느 날은 그릇을, 어느 날은 크고 작은 공을 상자에 담아 본다.

성완이는 상자에 혼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유한이와 큰 상자에 함께 앉아 보기도 한다.

유한이는 작은 상자를 밀고,
성완이는 큰 상자를 밀어 보기도 한다.

지혜와 유한이는
상자 '안'이 아니라 상자를 뒤집어 상자 '위'에 앉아 보기도 한다.

영아의 배움

지혜는 그림책의 토끼처럼 교실에 있는 상자 속에 직접 들어가거나 머리에 써 보면서 그림책의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며 알아 간다. 또한 상자를 뒤집어 막힌 공간을 보고 그 위에 앉아 보면서, 상자의 뚫리고 막힌 공간을 몸으로 탐색한다.
지성이는 상자 안에 놀이자료(꽃게 인형, 그릇, 공)를 넣어 보면서, 빈 공간에 다양한 물건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간다.
성완이는 작은 상자에는 혼자 들어가 보기도 하고, 큰 상자에는 또래와 함께 들어가 보기도 하면서 상자의 크기를 몸으로 가늠한다. 상자를 밀기 위해 팔과 다리의 움직임과 힘을 조절하여 균형을 잡으면서 이동한다.
유한이는 상자 안에 들어가 앉기도 하고, 상자를 뒤집어 막힌 공간 위에 올라가 앉아 보기도 하면서 뚫린 공간과 막힌 공간을 몸으로 탐색한다. 또한 상자를 밀기 위해 상자의 높이에 맞추어 몸을 낮추고, 팔과 다리에 힘을 주어 균형을 잡으며 움직인다.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 그림책 추천사

이건 상자가 아니야 | 앙트아네트 포티스 글 | 베틀북

이 책은 토끼 버전의 〈어린 왕자의 모자 속 코끼리〉 이야기 같아요! '상자구나!'와 '이건 상자가 아니야'라는 문장의 반복으로 그저 이야기만 따라가도 반전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퐁퐁퐁 솟아나게 합니다. 색을 사용하지 않는 미니멀한 시각적 표현이 '이건 상자가 아니야'라는 주제 효과를 극대화해 줍니다. 아이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의 세계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 신혜은 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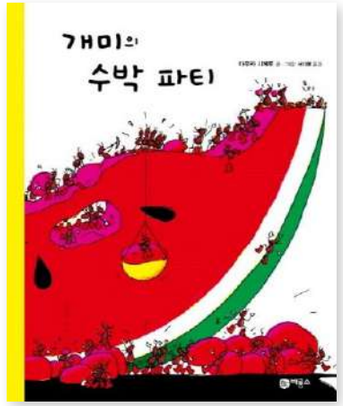
그림책이랑 똑같아!

1세

영아 6명

교사는 영아가 수박을 간식으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그림책을 교실에 비치한다

여름 간식으로 수박을 자주 먹는다. 수박을 작게 썰어서 내어 주기도 하고, 큰 수박을 통째로 내어 주어 함께 모여 떠 먹기도 한다. 수박 간식을 좋아하는 영아를 보며, 다양한 모양으로 잘린 수박에 상상의 이야기를 담은 〈개미의 수박 파티〉 도서를 비치한다.



ⓒ 개미의 수박 파티 | 다무라 시게루 글 | 비룡소

영아는 그림책의 그림과 교사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교사의 배움 지원(공간과 자료)

지빈이는 그림책 속 수박 미끄럼틀 장면을 보며 "우리도 만들고 싶어."라고 말한다.

↓

수박 미끄럼틀 장면을 크게 복사하여 벽면에 붙이고, 수박 껍질을 다양한 모양으로 잘라 제공한다.

책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아!

성호는 여러 모양의 수박 껍질을 살펴보다가 벽면에 붙어 있는 그림과 모양이 똑같다는 것을 발견한다.

" 똑같아~"

"이것 봐!"

나도 미끄럼틀 타 볼까?

지빈이도 그림책 속 미끄럼틀 모양 수박 껍질을 발견하고
발로, 엉덩이로 미끄럼틀을 타 본다.

수현이도 지빈이처럼 발로 미끄럼틀을 탄다.
수박 위에 앉아서 미끄럼틀을 내려오는 것처럼 좌우로 몸을 흔들며 재미있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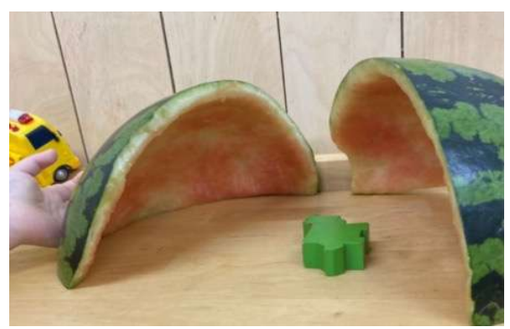
나는 이렇게도 놀 수 있어!

이슬이는 수박 껍질 위에 블록을 차곡차곡 올리고,
수현이는 수박 껍질을 머리에 써 본다.

지호는 수박 껍질 하나에 소방차 하나씩을 올려놓는다.

수현이는 집을 만든다며 수박 껍질을 나란히 늘어놓는다.

승호는 두 개의 수박 껍질을 모아서 놀잇감을 숨겼다가, 껍질을 벌려 놀잇감을 보여 준다.



영아의 배움

성호는 수박 껍질의 모양을 자세하게 살피고 그림책의 그림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리며 그림과 실물의 관계를 알아 간다.

지빈이는 그림책의 개미처럼 수박 껍질에 발을 올리고 미끄럼틀을 타거나, 엉덩이로 앉아서 미끄러지는 모습을 흉내 내며 그림책의 내용을 알아 간다.

수현이는 지빈이의 행동을 따라 수박 껍질에 발을 올리고 미끄러지거나 엉덩이로 앉아 보면서 함께 놀이한다. 더 재미있게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 좌우로 몸을 흔들며, 놀이하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수박 껍질을 머리에 써 보고, 늘어놓아 보며 수박 껍질이 만들어 내는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승호는 수박 껍질로 공간을 만들어 놀잇감을 숨기고 찾는 놀이를 하며, 열리고 닫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공간을 탐색한다.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 그림책 추천사

개미의 수박 파티 | 다무라 시게루 글 | 비룡소

영유아에게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책은 규칙을 말로 가르치기보다, 개미들의 움직임과 반복되는 장면을 제시해 역할 분담, 기다림, 배려를 눈으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해하게 합니다. 또한 실제 사물보다 더 실감 나는 수박 그림을 보며 더 구체적으로 수박의 생김새와 특징을 감각할 수 있게 합니다.

- 연구진 -

2. 그림책 인물처럼 해 봐요

영아는 그림책을 몸의 감각으로 읽는다.
그림책의 인물처럼 표정을 짓고, 몸짓을 하고, 움직이며 읽는다.

그림책은 영아가 따라 하고 싶어 하는, 재미있는 표정과 움직임을 담고 있다. 그림책 속 인물의 흥미로운 모습은 영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영아에게 따라해 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 영아를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영아는 그림책 속 인물의 동작을 유심히 관찰하고, 자신의 몸으로 그 움직임을 따라 하거나 새롭게 변형하며 마치 책 속의 인물이 된 듯한 즐거움을 느낀다. 이 과정에서 영아는 단순한 흉내 내기를 넘어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해 보며 몸과 감각으로 이야기를 알아 간다.

교사는 영아가 그림책의 장면을 자유롭게 몸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인물의 모습을 더 잘 관찰하거나 표현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자료를 제공하고, 함께 놀이를 즐기며 영아가 온몸으로 책을 읽는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몸짓으로 읽어요!

0세

영아 6명

영아가 책을 들고 온다

점점 더 많은 영아가 〈찾았다! 우리 아기〉 책을 들고 온다. 엄마와 숨바꼭질하는 그림책을 읽는 영아에게 귀를 기울여 본다.

교수·학습 자료

광목천, 망사천

ⓒ 찾았다! 우리 아기 | 이상교 글 · 윤순정 그림 | 그린북

영아는 교사에게 그림책을 내밀며 읽어달라는 의도를 다양하게 표현한다.

서현이는 책을 들고 다가온다.

지훈이는 교사 무릎에 앉는다.

이수는 좋아하는 장을 펼친다.

이수는 책의 내용에 따라 몸짓을 바꾸며 그림책을 읽는다.

교사: 요기 숨었나? 아니 아니~

이수: (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숨긴다.)

교사: (찾는 흉내를 내며) 어디 갔지?

이수: (얼굴을 들면서) 까꿍!

옆에 있던 서현이는 서서 몸을 구부리고, 지훈이는 앉아서 몸을 숙이며 이수의 까꿍 놀이에 참여한다.

교사: 수지 어디 있지? 요기 숨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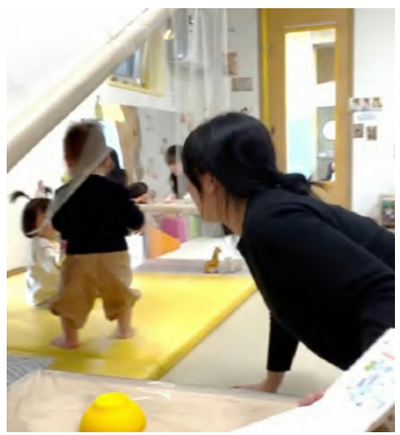
수지는 몸을 낮추어 책상 밑으로 숨었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재미있어한다.

교사의 배움 지원(공간)

영아가 책 속의 그림을 떠올리며 몸을 숨겼다가 보여 주는 움직임을 이어 간다.

더욱 다양한 몸짓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림책 장면처럼 천을 내려 공간을 만들어 준다.

예빈이는 커튼에서 까꿍 놀이 하는 장면을 보고,
천이 내려진 공간으로 가서 **"까꿍"** 한다.



수정이는 “이쪽, 이쪽” 하며 천이 있는 공간으로 가서 얼굴을 내민다.

교사: 수지, 요기 숨었니?

수지도 천을 올려 얼굴을 내밀며 즐거워한다.

영아의 배움

이수는 책의 흐름을 따라 엎드려 얼굴을 가렸다가 다시 보여 주는 몸짓을 하거나, “까꿍!”이라는 말소리를 내며 그림책의 내용을 몸으로 표현해 보면서 이해해 간다.
예빈이는 그림책의 커튼 그림이 교실에 드리운 천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림책의 아기가 커튼 뒤에 숨었다가 “까꿍!” 하며 나타나는 몸짓과 말소리를 흉내 낸다.
수지는 그림책의 아기처럼 책상 아래나 커튼 뒤에 숨으면서, 교사와 숨었다가 나타나는 놀이를 반복하며 교사와 즐거움을 나누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간다.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 그림책 추천사

찾았다! 우리 아기 | 이상교 글 · 윤순정 그림 | 그린북

엄마랑 아기가 함께하는 재미있는 숨바꼭질 놀이 그림책! 하나 둘 셋에 아기는 숨고 엄마는 술래가 됩니다. “요기 숨었나?” “아니, 아니.” “그럼 요기 숨었나?” “아니, 아니.”의 반복되는 리듬과 운율의 말놀이를 하며 아기는 온 방 안을 돌아다니며 숨습니다. 엄마는 빼꼼히 아기 발이 보여도 숨어 있는 아기를 찾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하, 숨바꼭질은 그래야 더 재미있으니까요!

- 신혜은 교수 -

맥스처럼 해 볼래요

1세

영아 6명

교사는 물감과 〈아트와 맥스〉 책을 함께 제공한다

끼적이면서 흔적 남기기를 즐기는 영아가 풍부한 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물감 제공을 계획한다. 그리고 보다 자유로운 표현을 지원하려고 〈아트와 맥스〉 책을 함께 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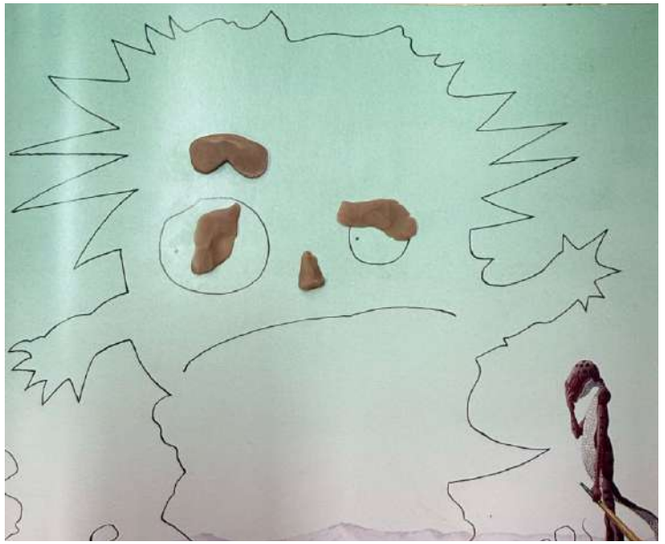
ⓒ 아트와 맥스 | 데이비드 위즈너 글·그림 | 시공주니어

교수·학습 자료

영유아용 물감

영아는 책의 그림과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인다.

희정이는 모습이 사라진 '아트' 그림에 유토로 눈과 코를 만들어 붙이며, 아트를 상상하면서 책 읽기를 즐긴다.



교사: 오늘은 아트와 맥스처럼 신나게 물감 놀이를 해 볼 거야! 누구처럼 해 보고 싶어?

호진: 맥스!

수인: 나는 아트 해야지~

호진이는 붓으로 손바닥에 물감을 칠하며
물감의 미끄러움과 색을 느낀다.

수인이는 물감을 짜고 섞으며 색이 변화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나영이는 물감을 쏟고,
뚜껑에 달린 호스를 움직여 흔적을 남긴다.

민호는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덧칠하여 표현한다.

민호는 거친 캔버스의 질감을 붓으로
감각하며 흔적 남기기를 즐긴다.

민호는 분무기로 물을 뿌리며
점점 흐려지는 색을 보고 놀란다.

"이것 봐. 없어졌어!"

"아트 몸이 없어져."

수인이는 물을 뿌리며,
물을 먹고 점점 흐려지던
그림책의 장면을 떠올린다.

다온이는 선풍기 바람에
물감 표면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신기해한다.

**"이것 봐! 움직여~
아트 몸이 날아가~"**

몸을 숙이고 '후후' 불어서
물감을 움직이게 하며
변하는 모습에 주의를 기울인다.

호진이는
선풍기 바람으로 물감을 퍼뜨리고,
발바닥을 쿵쿵 치며 물감을 튀기고,
발가락으로 밀면서 물감을 넓게 퍼뜨린다.
발바닥의 움직임이 만드는 색의 변화에 주목한다.

그림책 함께 읽기로 보육과정 실행하기

영아의 배움

희정이는 사라진 주인공의 얼굴에 유토로 눈과 코를 만들어 붙이면서 아트의 얼굴을 상상하며 책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책 읽기를 즐긴다.

수인이는 물감 통, 붓, 분무기 등 그림책에 나온 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물감에 물을 뿌려 색이 흐려지는 것을 그림책의 장면과 연결하며 책의 내용을 자신의 몸으로 풍부하게 경험한다.

나영이는 분무기의 뚜껑을 열어 물감을 쏟고, 뚜껑에 달려있는 호스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자신의 움직임에 따라 만들어지는 흔적을 탐색하며 집중한다.

민호는 자신이 좋아하는 파란색을 선택하고, 종이와 캔버스에 붓으로 물감을 칠할 때의 질감의 차이와 물감 위에 물을 뿌릴 때의 색과 모양의 변화를 알아 가며 즐거워한다.

다온이는 그림책의 맥스처럼 선풍기를 활용하여 직접 물감을 움직이게 하면서 책의 인물을 따라 하는 즐거움을 느낀다. 또한 물감이 움직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입김을 불어 물감을 움직이게 하려는 시도를 한다.

호진이는 그림책의 물감이 퍼지는 장면을 떠올리며, 물감을 퍼트리는 다양한 방법(선풍기를 활용하거나, 발바닥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물감을 튀기거나, 발끝으로 문질러 물감을 넓게 퍼지게 하는 방법)을 시도하면서, 그림책의 상황을 따라 하며 표현의 즐거움을 느낀다.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 그림책 추천사

아트와 맥스 | 데이비드 위즈너 글·그림 | 시공주니어

물감 놀이는 늘 준비와 정리가 부담스럽지만, 아이들에게 온몸으로 감각하는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특히, 우연히 만나는 색채의 흔적들, 서로 얽히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색채의 변화가 영유아에게 새로운 영감으로 다가옵니다. 이 책은 물감 놀이가 단순한 미술 활동을 넘어, 영유아의 다채로운 경험과 감각을 일깨워 주는 과정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색이 섞이고, 번지고, 흘러내리는, 예측할 수 없는 물감의 흔적들이 또 다른 재미를 만들어 내는 출발이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연구진 -

나처럼 움직여 봐!

2세

영아 6명

영아가 그림책을 다시 교실로 들고 오다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고르던 중, 정민이가 1학기에 교실에 비치했던 〈간질간질〉 책을 꺼내며, "이 책 오랜만인데! 이게 진짜 재미있는 책이야." 한다.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영아는 책장을 넘기며 스스로 읽거나 움직임을 따라 한다. 그림책의 인물처럼 움직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림책을 다시 교실에 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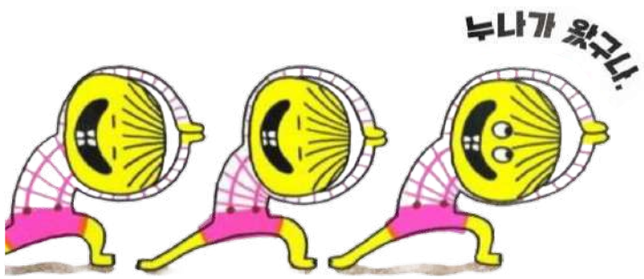
ⓒ 간질간질 | 서현 | 사계절

몸짓을 따라 해요

다리를 벌리고 한 팔을 올려 그림책의 '나'의 움직임을 흉내 낸다.

나는 나들과 춤을 추었지.

정민이, 건후, 하진이 그리고 앉아 있던 준기까지 모두 일어나서,
그림책의 '나'처럼 두 팔을 올리고 몸을 구부리며 즐거워한다.



교사의 배움 지원(공간과 자료)

영아가 책의 몸짓을 따라 하며 그림책 읽기를 즐기는 것에 주목한다.

↓

그림책의 다양한 몸짓을 흉내 낼 수 있도록 그림을 크게 출력하여 제공하고, 벽면에도 그림을 붙인다.

하진이는 그림 인형과
똑같은 몸짓을 찾는다.

하나는 팔을 들고
한 다리를 뻗은 몸짓을 따라한다.

"얘처럼~~"

몸짓을 이어 움직임을 만들어요

"이것 봐요!"

"나 봐 봐!"

정민이는 팔과 다리를 굽혔다 펴며 몸짓을 연결하여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

건후는 두 팔과 다리를 있는 힘껏 뻗고, 입도 크게 벌리며 움직임을 만든다.

교사의 배움 지원(자료)

영아가 그림책의 몸짓을 흉내 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만의 동작을 만들며 자랑스러워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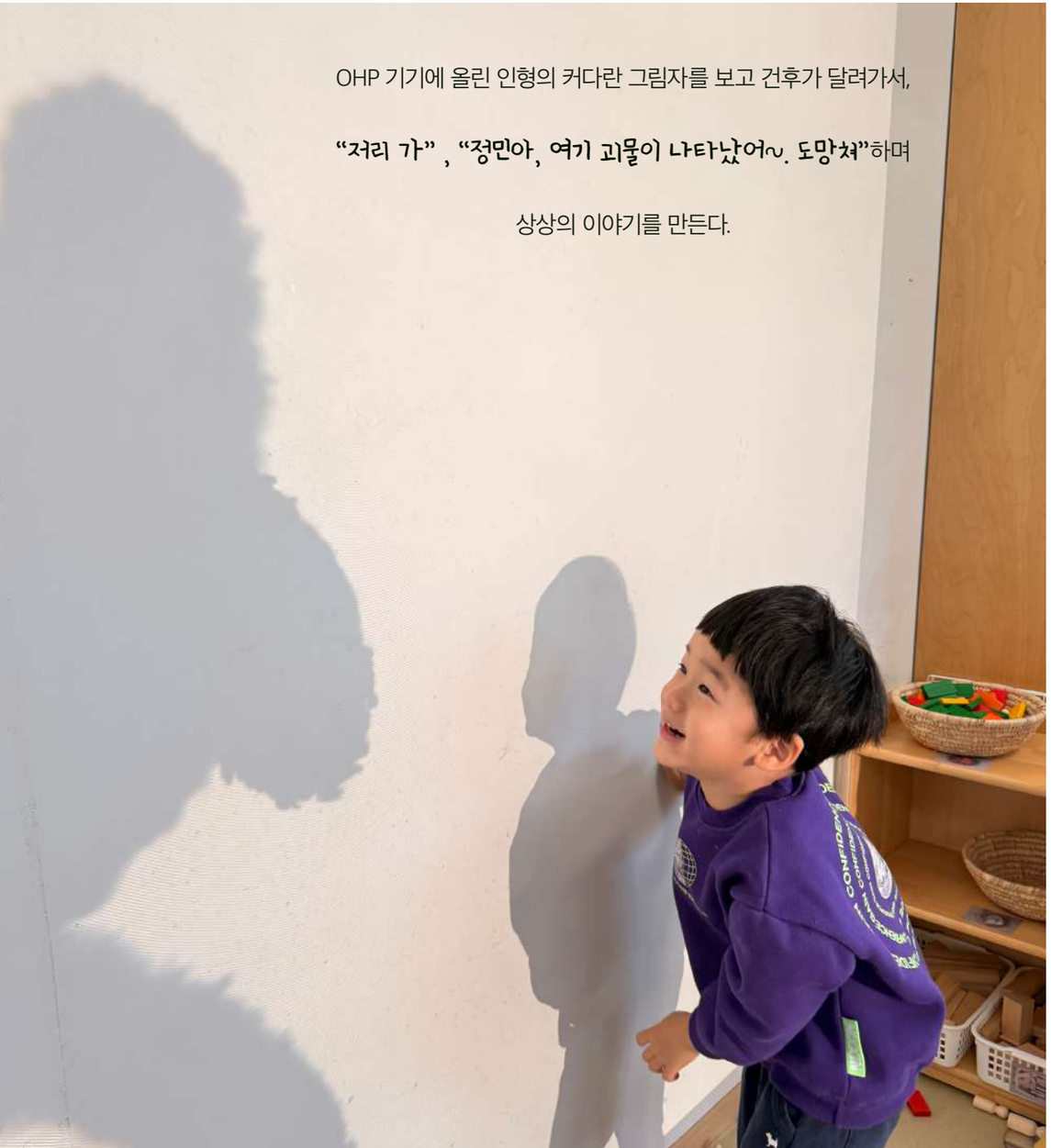
영아가 자신이 만든 동작을 눈으로 확인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OHP 기기, 그림책의 동작 그림, 그동안 영아가 시도했던 몸짓 사진을 제공한다.

그림자를 보며 움직임을 만들어요

하진이는 벽에 생긴 그림자를 잡거나 두드리며 탐색하다가, 그림자의 몸짓을 따라 한다.

유건이는 몸의 움직임에 따라 바뀌는 그림자를 살피며 움직임과 그림자의 관계에 호기심을 가진다.

움직이며 우리만의 이야기를 이어 가요



영아의 배움

정민이는 〈간질간질〉 책을 재미있게 읽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또래와 함께 움직임을 만들고 즐겁게 놀이한다. 책의 인물이 표현하는 몸짓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책의 인물과 똑같은 몸짓을 만들려고 몸을 다양하게 움직이며 그림책의 내용을 풍부하게 경험한다.

건후는 책에 등장하는 인물의 몸짓을 모방하고, 팔과 다리를 힘껏 뻗어 자신만의 움직임을 만들며 자랑스러워한다. 또한 그림자의 형태와 크기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 이야기를 만들고 또래와 나누는 것을 즐긴다.

하진이는 그림책의 몸짓과 똑같은 몸짓의 그림을 찾아 맞추면서 책의 내용을 알아가고, 책에 등장하는 인물과 또래의 몸짓을 따라 하며 즐거워한다.

유건이는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다르게 할 때 어떤 그림자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면서 몸의 각 부분을 자유롭게 움직여 다양한 동작 만들기를 즐긴다.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 그림책 추천사

간질간질 | 서현 | 사계절

아이들이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간질간질'한 감각을 통해,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웃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반복되는 말놀이의 리듬과 함께 몸의 흐름과 움직임을 느끼며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혼자서 혹은 친구와 함께 간질간질한 표현을 따라 하며 예측 가능한 흐름과 언어의 리듬으로 즐거움을 생성합니다. 즉 아이의 웃음을 자극하는 책이자 동시에 영유아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림책입니다.

- 연구진 -

3. 그림책으로 마음을 나누어요

그림책을 함께 보며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나눈다.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따뜻한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 간다.

그림책은 영아가 타인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며,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한다. 그림책은 영아가 또래와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하며, 영아에게 위로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 주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또래와 나누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영아는 또래와 교사에게 그림책을 건네며 함께하는 마음을 알게 한다. 그림책 속 장면처럼 친구와 함께하거나 선생님을 안아 주며 정서적인 교감을 나눈다. 때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친구에게 보여 주며 함께 놀이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면서 '나'의 즐거움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확장하며 관계를 맺어 간다.

교사는 영아와 편안하게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함께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영아가 책을 통해 또래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격려하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타인과 교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영아의 사랑스러운 몸짓과 표현에 따뜻하게 반응하여, 영아가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 가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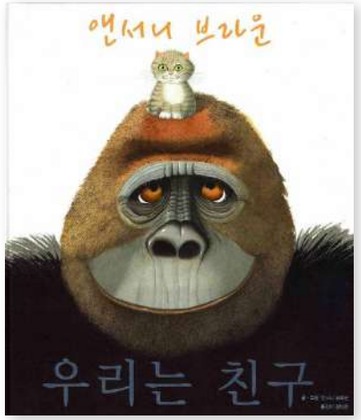
우리도 친구

0세

영아 2명

교사는 〈우리는 친구〉 책을 책꽂이에 비치한다

이 그림책은 주인공의 다양한 마음이 표정과 몸짓, 언어로 잘 드러난다. 표정과 몸짓으로 소통하는 우리 반 영아가 〈우리는 친구〉 책을 어떻게 즐기며 놀이할지 기대를 가지고 책꽂이에 비치한다.



ⓒ 우리는 친구 | 앤서니 브라운 글 · 그림 | 웅진주니어

지후는 선생님과 함께 그림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읽는 것도 좋아한다.

지후는 우는 예지를 달래려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건넨다.
예지는 울음을 멈추고 그림책을 함께 본다.

그림책 속 고릴라와 예쁜이처럼 지후는 함께하는 것이 친구임을 알아 가고 있다.
그렇게 친구와 함께 하는 경험을 쌓아 간다.

영아의 배움

지후는 내가 좋아하는 책을 혼자 혹은 교사와 함께 반복해서 읽으며 그림책 읽기를 즐긴다. 또한 지후는 우는 예지에게 그림책을 건네어 함께 읽으며 마음을 달래려 하며,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예지는 지후가 건네준 그림책을 함께 바라보며 친구의 관심에 반응을 보이고, 함께 그림책을 읽는다.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 그림책 추천사

우리는 친구 | 앤서니 브라운 글 · 그림 | 웅진주니어

손짓말을 할 줄 아는 특별한 고릴라,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렇지만 슬픈 고릴라가 손짓말을 했대요. “나는.. 필요해.. 친구가..” 얼마 후 고릴라에게는 작은 고양이 친구 ‘예쁜이’가 생깁니다. 둘은 행복했고 무엇이든 함께 했지요. 그런데 고릴라가 화가 나서 텔레비전을 부순 날, 놀라 달려온 사람들이 고양이를 데려가야겠다고 하는 순간, 세상에나 고양이 예쁜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세상에나 “텔레비전을 부순 건 나예요!”라고 손짓말을 했다네요. 우리도 고릴라와 고양이처럼 서로를 위한 손짓말을 한 번 해 볼까요?

- 신혜은 교수 -

너랑 같이 보고 싶어

0세

영아 4명

교사는 작년에 영아가 좋아하던 책을 비치한다

작년 0세 반에서 그림책을 즐겨 읽던 영아의 모습을 떠올리며, 올해도 같은 그림책을 교실에 비치해 본다. 올해 우리 반 영아는 이 책을 어떻게 만나고, 어떤 장면에서 반응을 보일까?

ⓒ 우리집에는요 | 편집부 저 | 훈민출판사

미나는 책의 마지막 장면(가족 구성원이 모두 그려진 장면)을 펼치고, 책을 돌려 준서에게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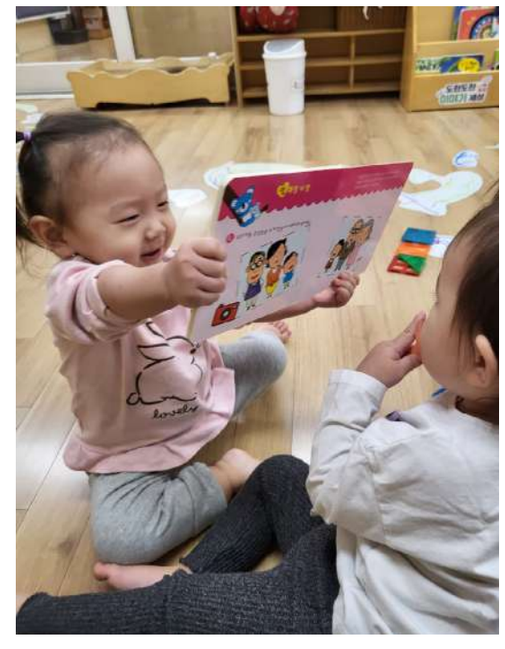
미나: 누구게?

준서: 하비(할아버지), 엄마.

로희도 관심을 보이며, 다가와서 미나와 마주 보고 앉는다.

미나: 누구게?

로희: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미나는 인후와 눈이 마주치자
인후에게 책을 들어 보여 주며 함께 읽는 즐거움을 나눈다.

영아의 배움

미나는 그림책에서 좋아하는 장면이 생기면서 책 읽기를 더욱 좋아한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장면을 친구도 볼 수 있도록 책을 돌려서 보여 주고 대화를 이어 가기 위해 "누구게?"라고 질문하면서,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 간다.
준서는 책을 보여 주는 미나의 몸짓과 "누구게?"라는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며 함께 책을 보고 싶어 한다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하비, 엄마."라고 말하며 소통한다.
로희는 미나와 준서가 함께 책을 읽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와서 앉고, 미나의 질문에 "엄마, 엄마! 아빠, 아빠!"라고 대답하여 소통하면서 함께 하는 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낀다.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 그림책 추천사

우리집에는요 | 편집부 저 | 훈민출판사

'우리집은 이래요'라는 아이의 말에서 출발해, 가정의 모습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따뜻하게 보여 주는 그림책입니다. 한 가지 기준으로 정의할 수 없는 가족의 형태와 일상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며, 영유아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연구진 -

꼭 안아 줄 시간

1세

영아 3명

ⓒ 엄마가 화났다 | 최숙희 글 · 그림 | 책읽는곰

교사는 영아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그림책을 비치한다

〈엄마가 화났다〉 책은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교실까지 들어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영아와 이를 답답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간혹 영아를 답답해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교실에 이 책을 비치한다.

〈사랑해 꼭 안아 줄 시간〉은 표지부터 사랑스럽다. 남자 어린이 셋과 함께 지내는 일상에서 감정이 가득 담긴 포옹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그 사랑스러움을 책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비치한다.

ⓒ 사랑해 꼭 안아 줄 시간 | 필리스 거셰이터, 밈 그린 글 | 북뱅크

찬영이가 〈엄마가 화났다〉를 교사에게 내민다.
엄마와 아이가 포옹하는 장면을 보고, 〈사랑해 꼭 안아 줄 시간〉 책을 가져와 똑같다고 한다.

"똑같다."

점심 먹기 전,
〈엄마가 화났다〉 책을 함께 읽는다.

찬영: (엄마가 속상해하는 장면)

아잉, 엄마. 이잉.

이준: 엄마가 없어졌어.

찬영이가 아이와 엄마가 포옹하는 마지막 장면을 보고

찬영: "사랑해. 꼭 안아 줄 시간"

찬영이가 교사를 안아 준다.

찬영이는 이준이를 안아 주고

지우를 차례로 안아 주며,
책 속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나눈다.

산책을 가서도 〈엄마가 화났다〉 책을 함께 읽는다.
마지막 장면에서 찬영이가 교사를 안자
이준이도 교사를 안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

"사랑해. 꼭 안아줄 시간."

영아의 배움

찬영이는 서로 다른 두 권의 책에 똑같은 장면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교사에게 보여 준다. 사랑한다고 말하며 안아 주는 책 내용의 의미를 나눈다. 아기와 엄마가 안는 장면에서 교사를 안고 "사랑해. 꼭 안아 줄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안아 주는 것이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현임을 알아 간다.
이준이는 그림책 속 엄마와 아기가 안고 있는 장면과 찬영이가 선생님을 안아 주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선생님을 안아 준다. 선생님을 안으며 친밀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다.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 그림책 추천사

엄마가 화났다 | 최숙희 글 · 그림 | 책읽는곰

아이들은 어른의 감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책은 화를 '나쁜 감정'으로 규정하지 않고, 표현과 회복의 과정까지 함께 보여 주는 감정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이의 시선에서 어른의 '화난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게 하며, 어른도 실수하고,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임을 보여 줍니다. 즉, 화는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사랑해 꼭 안아 줄 시간 | 필리스 거셰이터, 밈 그린 글 | 북뱅크

'안아 줌'이라는 단순한 행동으로, 아이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과 정서적 안정감을 자연스럽게 경험합니다. 이 책은 말보다 따뜻한 신체적 접촉의 힘을 이야기하면서도 강요하지 않는 애정 표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안기고 싶을 때, 혼자 있고 싶을 때 스스로 느끼고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연구진 -

4. 그림책이 세상과 만나다

그림책 속에서 만난 모양과 색깔은
영아의 호기심을 교실, 그리고 바깥 세상으로 이끈다.
영아는 책을 펼쳤다 덮었다 하며, 세상에 관심을 가진다.

그림책은 영아가 책 속의 이미지와 주변 환경을 연결하도록 고리 역할을 한다. 그림책의 여러 가지 모양과 색으로 표현된 이미지는 영아가 주변 환경을 새롭게 바라보고 발견하게 한다. 영아는 그림책의 이미지를 세상에서 찾으며, 세상에 호기심을 보이고 주목한다.

영아는 그림책의 이미지가 주변 환경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똑같다.", "여기도 있어."라고 하며 자신의 발견과 배움에 기뻐한다. 영아는 책 속의 이미지를 주변에서 찾아보는 즐거움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책 속의 이미지를 직접 만들고 몸으로 표현한다.

교사는 영아가 책에서 본 모양이나 사물에 관심을 가질 때, "어디에 또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하며 영아의 시선이 책에서 주변 환경으로 확장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아가 사물의 형태나 움직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자료를 제공하고, 영아의 발견을 함께 기뻐하며 탐색의 즐거움을 지지한다.

그림책이 퍼뜨린 눈길

1세

영아 7명

교사는 영아의 관심과 연관된 그림책을 비치한다

영아가 동그라미 모양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동글동글 동그라미책〉을 비치한다. 이 책은 책의 모양도 동그라미여서 영아가 더욱 주목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글동글 동그라미책 | 이수연 글 · 김잼 그림 | 키즈엠

교수·학습 자료

다양한 색상의 색지

책이 동그라미야!

책장에서 새로운 책을 발견하고 책의 모양에 관심을 가진다.

소현: 이게 뭐야? 책이 동그라미네!

다양한 방향으로 열리는 것을 보며,

유찬: 나도 해 볼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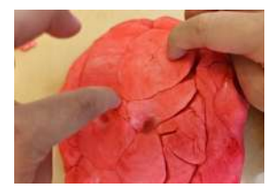
나도 동그라미 만들 수 있어!

태형이는 밀가루 반죽으로 책에서 본 공을 만들고 손바닥으로 밀어서 굴린다.

"공! 빵!", "공! 빵"

하겸이는 반죽 공을 발로 차고,
공이 굴러가는 모습에 즐거워한다.

"하하~ 떼굴떼굴!"



몇 번을 발로 차니, 동그란 반죽이 점점 납작해지면서 굴러가지 않는다.

"이건 동그라미가 아니야!"

"안 굴러가니까."

납작해진 반죽을 만지다가 손가락으로 꾸~욱 누르자 모양이 생긴다.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두 개 됐네. 하하하~"

민혁이와 태형이가 반죽으로 동그라미를 만든다.
동그라미 옆에 동그라미를 놓으며 계속 잇는다.

"이거 애벌레야. 애벌레."

"하나, 둘, 셋~"

소현이도 동그라미를 만들고 있는다.

"이건 애벌레야."

"이건 큰 동그라미, 이건 작은 동그라미야.
이건 진짜 작은 동그라미!"

동그라미에 동그라미를 더하면…

소현이는 큰 동그라미에 작은 동그라미를 올려놓는다.

"곰돌이야. 곰돌이. 귀엽지~"

"이거는 원숭이야."

"원숭이는 이렇게
꼬리가 있는 거야."

하겸: 이건 팬더 발바닥!

교사의 배움 지원(자료)

영아가 주변에 있는 동그라미 모양을 찾기도 하고, 반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공, 애벌레를 상상하며 만들기도 한다.

↓

더욱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질과 크기의 동그라미를 제공한다.

소현이는 애벌레와 나무 열매를 만들고 이야기를 짓는다.

"꿈틀꿈틀꿈틀~~
애벌레가 열매 찾았어요.
쿨~~. 이제 잔대요.
애벌레 잘 자~"

정호는 손가락 네 개로 동그라미를
동시에 눌러 이동시키며 이야기를 짓는다.

"꿈틀꿈틀~
애벌레가 열매를 먹으러 간대."

하겸이는 곰돌이를 만들고, 일어나서 곰돌이가 춤을 춘다며 팔을 좌우로 흔든다.

"짠. 곰돌이 팔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추고 있대."

공도 바퀴도 굴러가는 동그라미야!

다온이와 소현이가 동그라미를 쌓으며 "하나 둘 셋" 하며 셀 수 있는 수만큼 세어 본다.
쌓은 동그라미가 무너지면서 굴러가자, 다온이가 웃으며 말한다.

"하하! 이게 뭐야!
떼굴떼굴 굴러간다!"

굴러간다는 말에 민혁이가 동그라미를 하나씩 굴린다.

"하하! 이것 봐! 진짜 공 같지!"

"굴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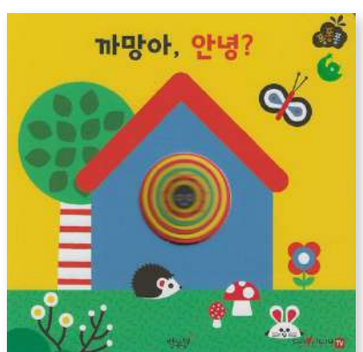
하겸이는 자료를 세워서 연결하고 뒤에서 민다.
모든 동그라미를 동시에 굴린다.

"이거 기차 바퀴야.
기차 바퀴 엄청 많지? 똑같아!"

동그라미로 가득한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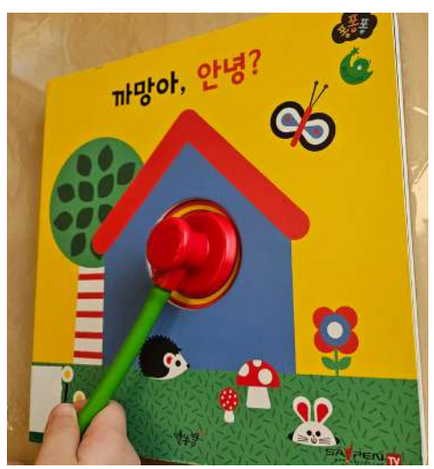
교사는 동그라미 그림책을 한 권 더 추가해 본다

〈까망아, 안녕?〉 책은 다양한 크기와 색의 동그라미가 입체감 있게 구성되어 있다. 동그라미와 관련된 그림책이 더해지며 영아의 관심이 어떻게 변해 갈지 귀 기울여 본다.



ⓒ 까망아, 안녕? | 델피네 세드루 글·그림 | 별똥별

"어? 똑같네."



여기도 동그라미가 있어!

정호는 색깔 돋보기를 책 표지 위에 올리며 뿌듯한 미소를 짓고, 돋보기로 책을 본다.

"이것 봐~ 동그라미 똑같지!"

유찬: (다른 책을 가져와 가리키며)

여기도 동그라미. 똑같아!

다온이는 인형의 눈과 볼을 가리키며

"이거도 똑같네!"

아기 인형의 동그란 머리

동그란 책상

동그란 책상 위의 동그란 통

유찬: 여기도 있어!

다온: 저기! 해님이 있네~ 반짝반짝!

유찬: 빠방! 바퀴도 있어.

다온이와 유찬이는 교실 곳곳에서 동그라미를 발견하며 신이 난 듯 뛰어다닌다.

창문 시트지의 동그라미

보일러의 동그란 버튼

동그란 시계

천장의 동그란 무늬

바깥에도 동그라미가 있어! 그런데…

다온이가 창문으로 달려가 창문 밖의 동그라미를 찾는다.

"어! 저기 동그라미가 있어."

"그런데 창문은 네모네?"

"어! 지붕은 세모야!"

한 달 동안의 영아의 배움

소현이는 〈동글동글 동그라미책〉의 동그란 모양을 알아 가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동그라미에 자신만의 상상을 더해 간다. 반죽으로 동그란 애벌레를 만들고, 다양한 크기의 조각을 활용해 곰돌이, 원숭이, 애벌레, 나무 열매 등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더 나아가 애벌레가 열매를 찾고, 잠이 드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등 그림책의 내용을 자신만의 언어와 표현으로 확장한다.

유찬이는 또래의 몸짓과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친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세심하게 살핀다. 또래의 놀이에 "나도 해 볼래", "여기도 있어"라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어울리기를 즐긴다. 또한 책 속의 그림에서 찾던 동그라미를 교실 내 역할놀이 의상이나 자동차 바퀴 등 주변 환경으로 시선을 돌려 찾아내며 탐색의 범위를 점차 넓혀 간다.

하겸이는 온몸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실험하고 표현하기를 즐긴다. 반죽 공을 발로 차거나 자료를 길게 연결하여 기차 바퀴를 만들고 굴려 보는 등, 동그라미의 '굴러가는 특성'을 감각으로 알아 간다. 또한 다양한 크기의 동그라미로 곰돌이를 구성한 후에 직접 팔을 흔들고 춤을 추면서 몸으로 표현하기를 즐긴다.

다온이는 그림책 속 동그라미를 주변 사물과 연결하며 모양의 특징을 구별해 간다. 청진기가 동그라미임을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교실의 둥근 책상, 보일러의 버튼, 더 나아가 창문 밖의 표지판과 자동차 바퀴까지 찾아내며 탐색 공간을 주도적으로 확장한다. 특히 "창문은 네모, 지붕은 세모."라고 말하며, 동그라미와 다른 모양의 차이점을 알고 단어로 구별하여 말한다.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 그림책 추천사

동글동글 동그라미책 | 이수연 글 · 김잼 그림 | 키즈엠

얼굴은 영유아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대상이자, 지각적 선호 자극입니다. 특히 또래 아이의 웃는 얼굴은 그 무엇보다 강력하지요. 게다가 모양과 이름과 내용까지 '동그라미'라는 내적 일치성을 지녔다니, 정말 매력적인 그림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 아래, 양옆으로 열리는 팝업 장치 역시 아이들의 흥미를 배가하는 데 충분합니다.

- 신혜은 교수 -

까망아, 안녕? | 델피네 셰드루 글·그림 | 별똥별

아이들은 매일 새로운 관계를 연습합니다. 친구에게 다가가고, 반응을 살피고, 때로는 응답을 기다리는 경험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책은 짧은 말과 단순한 그림 속에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의 설렘과 조심스러움을 섬세하게 담아냈습니다.

- 연구진 -

5. 말놀이하며 그림책을 함께 읽어요

영아는 함께 그림책을 보며 말소리를 만들어 간다.
교사, 또래와 만든 소리를 나누며
말놀이의 즐거움, 소통의 즐거움을 알아 간다.

그림책은 영아의 말놀이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낸다. 흥미로운 시각적 단서(플립, 그림 등)가 있는 그림책은 영아가 다양한 소리를 상상하고, 리듬감 있는 말놀이를 하게 하는 놀이자료이다. 또한 그림책은 영아가 그림을 단서로 자유롭게 말소리(의성어, 의태어)를 상상하게 하고, 말소리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열린 놀이자료가 된다.

영아는 그림책을 넘기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짚어 보며, 자음과 모음을 엮어 자신만의 말소리를 만들어 낸다. 스스로 만들어 낸 소리를 반복해 말해 보거나, 교사와 친구에게 들려주며 반응을 살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영아는 말이 놀이가 될 수 있음을 느끼고, 소리를 주고받으며 함께 웃고 즐기는 경험을 쌓아 간다. 영아의 말소리 만들기는 그림책을 읽는 방식이기도 하다.

교사는 그림책을 읽으며 말놀이가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다. 영아가 그림책을 보며 큰 소리로 말하거나, 반복하거나, 리듬 있게 표현하는 것을 함께 즐긴다. 영아가 내는 소리와 말에 맞춰 몸짓, 표정, 손동작을 함께 하며 말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아가 반복 속에서 말놀이를 즐기는 것을 이해하고,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고자 하는 선택을 존중한다.

“까꿍! 띵동! 까꾸뽀꾸!”

1세

영아 4명

영아가 도서 공간에서 책을 골라 교실로 가져온다

그림책에 보다 더 흥미를 가지도록 영아가 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영아가 고른 책 중 〈아주아주 배고픈 애벌레의 숨바꼭질 놀이 눈 오는 날〉은 플립으로 된 책으로 ‘까꿍놀이’도 즐길 수 있다.

ⓒ 아주아주 배고픈 애벌레의 숨바꼭질 놀이 눈 오는 날 | 에릭 칼 글·그림 | 시공주니어

하준이와 이나는 좋아하는 그림책을 골라서 교실로 가져온다.

플립이 열리면 소리가 나요

하준이는 플립을 하나씩 열어 보며

“까꿍~”

수호는 숨어 있는 동물들을 찾으며

“띵동~”

지안이는 플립을 열 때마다
다양한 소리를 내어 본다.

“삥~”

“까꾸뽀꾸~”

“포~”

“까꿍~”

“엑!”

하준: 어... 나는 까꿍 아니구... 띵동 아니구...

까꾸뽀꾸야.

그림에 소리를 더하다

하준: **사자! 어흥~ 해.**
지안: 흐히히. (손을 번쩍 들며) **빵빵~! 해!**
하준: 사자 빵빵 소리 안 내. 어흥 소리 내.
지안: 빵~빵~ 해!
하준: 빵빵 안 해.
교사: 지안아, 사자가 빵빵이라는 소리도 내?
아니면 사자가 너무 커서 빵빵해~ 하는 거야?

하준: 아니. 빵빵 안 해.
지안: 사자 커. 엄청 커.
교사: 아~ 사자가 너~무 크다는 말을 하고 싶었나 봐.
지안: 어우~! (큰 소리를 내며) 멈머머.
하준: 아니? 아니 멈머 안 했는데?
어… 어? 엄마 사자 찾아따.

영아의 배움

하준이는 플립 뒤에 숨은 동물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플립을 열어 보며 "까꿍", "까꾸보까" 등의 의성어를 만들면서 말놀이의 재미를 느낀다. 지안이에게 사자의 소리를 들려주고 또래와 함께 말놀이를 하며 책을 함께 읽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수호는 "까꿍" 대신 "띵똥"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플립이 열리는 소리를 만들어 내며 그림책 읽기를 즐긴다.
지안이는 플립이 열릴 때 마다 소리를 바꾸어내며 그림책을 이어 읽는 즐거움을 말놀이로 경험하고 있다.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 그림책 추천사

아주아주 배고픈 애벌레의 숨바꼭질 놀이 눈 오는 날 | 에릭 칼 글·그림 | 시공주니어

'숨바꼭질 놀이'는 집중력과 추론 능력, 공간지각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 책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영유아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끌며,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그림 속 장면을 탐험하게 합니다. 눈으로 덮인 장면 속에서 애벌레를 찾는 과정은 영유아에게 관찰력과 기다리며 발견하는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 연구진 -

“이거 뭐야?”

1세
영아 3명

교사는 영아의 그림책 읽기를 따라간다

날씨에 주목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우리 반 영아는 주인공, 자동차, 매미, 개구리 장화, 폴짝폴짝 춤추는 장면, 달팽이, 자동차에게 눈 모자 씌워 주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장면을 직접 찾아가며 그림책을 읽어 나간다.

ⓒ 날씨가 좋아 | 김미나 글·그림 | 그린북

〈날씨가 좋아〉 책을 두 달 넘게 즐겨 읽으면서,
또래와 함께 그림책을 읽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림책에서 “이거 뭐야?”

지안이, 하준이, 수호가 책의 마지막 장면을 펼치고 ‘자동차 퀴즈’ 놀이를 한다.
하준이가 질문하고 수호가 대답한다.

“이거 뭐야?”

“빠방”

“두두”

“자동차”

“비행기”

“택시”

하준이는 혼자 책을 읽다가
옆에서 그림을 그리는 지안이에게 물어본다.

"이거 뭐야?"

지안: (고개를 돌리며) 아냐.

교사: 하준아, 지안이는 지금 그림 그리고
싶은가 봐~ 우리 그럼 다른
친구한테 같이 하자고 할까?"

하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지안이를 바라본다.)

교사와 하준이의 대화를 듣고
수호가 관심을 가지며 다가온다.

하준: (수호가 앉자마자) 이거 뭐야?

수호: 택시! 빠방! 두두!

내 그림은 무엇일까요?

수호는 그림을 그리고, 손으로 짚으며
교사에게 질문한다.

"이거 뭐야?"

교사: 음... 빠방인가? 이거 뭐야?"
이거 소방차야?

수호: 어~?

교사: (수호의 대답이 애매하게 느껴져서) 혹시 불이야?"

수호: 어~? 애앵~

수호는 "애앵~" 소리를 내며
소방차가 맞다고 힌트를 준다.

수호와 하준이는 매직 보드에 그림을 그리고, 지안이가 볼 수 있도록 들어서 질문한다.

"이거 뭐야?"

영아의 배움

하준이는 그림책의 그림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것으로 또래에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책을 읽는 것을 즐긴다.
수호 역시 하준이의 질문에 답하며 그림책을 함께 읽는 것을 즐긴다. 그림을 그려서 알아맞히기를 하는 것이 그림책 읽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지안이는 매직 보드에 그림을 그려 맞히는 퀴즈 놀이를 할 때에, 매직 보드를 반대로 들어 상대방이 그림을 잘 볼 수 있게 보여 주며 그림을 읽는 과정을 즐기고 있다.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 그림책 추천사

날씨가 좋아 | 김미나 글·그림 | 그린북

매일 반복되는 날씨 이야기로, 영유아가 자연과 자신의 마음을 함께 바라보도록 이끄는 그림책입니다. 특별한 사건 없이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햇살과 바람, 구름의 변화가 아이의 감정과 나란히 놓이며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시간을 차분히 느끼게 합니다. 날씨를 말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살피고, 자기 인식과 정서의 표현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 연구진 -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소리 만들기

2세

영아 8명

교사는 소리 만들기를 즐기는 영아에게 그림책을 지원한다

3월 초부터 놀잇감을 두드려 소리를 만들고 함께 공연하는 놀이를 하던 영아에게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그림책〉을 지원한다. 글 없는 그림책에 영아가 어떤 소리를 더해 갈지 귀를 기울여 본다.

ⓒ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그림책 | 벤야민 고트발트 글·그림 | 초록귤

영호와 도운이는 그림을 보며 연상되는 소리 만들기를 즐긴다.

영호: 이게 무슨 그림이야?

뭐야? 방귀를 뀌고 있잖아.

하하하!

도운: 또 넘겨 보자.

어? 이건 에취- 하고있어.

탈것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요

지우: 어? 이건 뭐지? 자동차가 엄청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

교사: 자동차가 엄청 빠르게 지나갈 때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

지우: **징- 징- 지잉.**

어? 여기에는 뭐가 있지? 헬리콥터인가?

영호: 헬리콥터 아니고 비행기인데.

지우: (고개를 끄덕이며) 비행기야.

교사: 비행기가 지나갈 때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

지우: **위이잉**-하는 소리.

승윤: 아냐. 비행기가 지나갈 때는 **징징징** 소리가 나.

영호: 엄청 빠른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인데….

교사: 그럼 비행기가 엄청 빨리 지나갈 때는 어떤 소리가 날까?

지우: (강하게 발음하며)

두! 두! 두 !두!

승윤: (팔을 앞으로 뻗으며)

지이이이이이잉-

이건 제트 비행기잖아.

영호: 얘는 사이렌이는 **애앵애앵애앵**.

시우: (손으로 두드리는 시늉을 하며) **쿵쿵- 쾅쾅**.

영호: (옆 페이지 스피커 그림을 보며) 이거는 **와애애애애애앵-**

(다음 장을 넘긴 후)

영호: 차가 막히고 있다! 차가 막히고 있어.

교사: 차가 엄청 많다. 여기서는 무슨 소리가 들려?

영호: **빵빵**.

시우: **뚱땅뚱땅**.

영호: 나는 **부릉**-소리가 나는 것 같아.

도운: 도운이는 **쿵쿵**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움직임과 느낌도 소리를 내요

시우: (로봇 흉내를 내며) **삐리 삐리 삐리 삐리**↘

교사: 하하하 얘들아.

시우 로봇 흉내 내는 것 좀 봐 봐.

재하: **삐리삐리 삐리삐리 신기한 삐리삐리**♬

영호: 어? 이것 봐 봐. 얘는 뱀이야.

이 주황색은 뭐지?

교사: 이건 뱀의 혓바닥이야.

영호: **스으으으으으**.

재하: 나도 **스으으으으**-하는 소리 나는 것 같아.

영호: 레몬이야!

교사: 레몬 먹으면 어때?

재하: 너무 셔!

영호: **(레몬 먹는 시늉을 한 후 인상 쓰며)**

으! 셔!

재하: **(몸을 부르르 떨며)** 으, 너무 셔!

승윤: 해골이다!

(일어나서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해골은 **삐그덕 삐그덕 삐그덕 삐그덕.**

이준: 삐그덕이 아니라….

승윤: 해골은 삐그덕 소리가 나? (움직임 보여줌)

이준: 해골은 무서운 소리가 나.

승윤: **꺄악!**

소리에 리듬을 더해요

이준: 이건 지하철이고, 이건 KTX야.

교사: 이 그림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

보나: **이잉---** 하는 소리

이준: 근데 이건 뭐냐면, 뿌뿌.

보나: 기차 소리.

이준: **치익치이이익.**

(노란 기차를 가리키며) 근데 이건 문이 한 개지.

근데 SRT 노래 알아?

도운: 에스알스티 에스알스티~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이준: (허밍하며) **으으음 으으음~ 으으으으으음.**

보나: (도운이를 따라 하며) 보나 하는 거 들어봐.

에스알스티 에스알스티.

영아의 배움

영호는 그림책의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사물의 소리를 상상하며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내면서 책의 내용을 풍부하게 경험한다. 탈것의 속도를 발음의 세기와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승윤이는 탈것, 해골, 무서운 장면에 어울리는 소리를 상상하고 만들어 내면서, 장면의 분위기와 느낌을 말소리로 만들어 보는 것을 즐겨 한다.

보나는 기차 소리를 다양한 의성어로 표현하며 말놀이를 즐긴다. 또래의 소리를 따라 하거나 변주하며, 소리를 통해 함께 놀이에 참여하며 관계 맺는 것을 경험한다.

시우는 로봇을 흉내 내며 음의 고조와 운율을 살린 소리를 만들어 낸다. 반복과 리듬을 활용해 자신만의 소리를 구성하며, 소리 자체를 즐긴다.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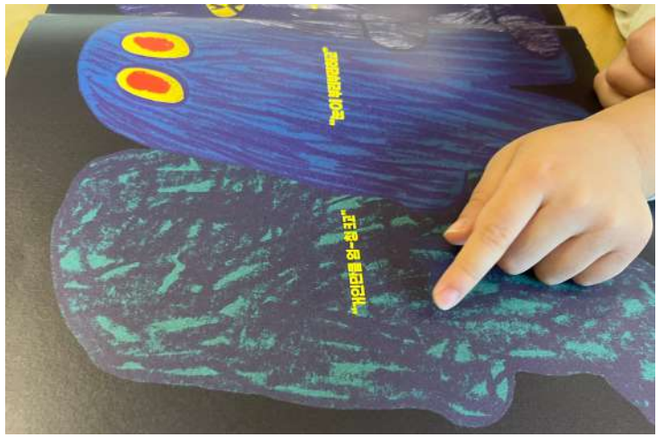
✦ 그림책 추천사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그림책 | 벤야민 고트발트 글·그림 | 초록귤

글자는 없지만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더 제목이 반전인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그림책〉. 이 책은 시끄럽게 읽을 수도 있고, 또 조용조용하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읽는 아이마다 소리의 모양과 크기가 다릅니다. 나만의 소리 그림책을 만드는 묘미! 꼭 경험해 보시기를요!

- 신혜은 교수-

6. 그림책으로 이야기 짓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림책과 영아의 경험이 만나며 말놀이는 이야기 짓기로 이어진다.
함께 읽는 경험이 반복되며, 이야기는 점점 풍성해진다.

그림책은 재미있는 이야기 짓기를 가능하게 한다. 영아가 그림책을 보고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그림책이 닫힌 텍스트가 아니라 열린 서사 구조임을 보여 준다. 글이 적거나, 없는 그림책일수록 영아는 그림 속 요소—색, 표정, 움직임, 사물 배치—를 읽어 내며 자기만의 서사를 만들어 간다. 그림책은 언어 이전의 생각을 촉발하는 시각적 언어이자, 영아의 이야기 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놀이자료이다.

영아는 이야기 속에서 실제 세계에서는 해 볼 수 없는 변형을 자연스럽게 해낸다. 영아는 어디로 흘러갈지 예상하지 못한 채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또한 영아는 이야기 짓기를 하며 자기 감정과 경험을 밖으로 꺼내어 다룰 수 있게 된다. 영아는 이야기 세계에서 안전하게 놀이한다.

교사는 그림책의 글자를 그대로 읽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야기의 동행자이다. 이야기를 짓는 영아에게 이야기의 주도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영아가 만든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사물에 주목하는지, 어떤 감정에 공감하는지, 어떤 경험을 떠올리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영아의 그림책 읽기를 따라가면서 영아의 경험을 더욱 잘 알아 갈 수 있다.

괴물 이야기

2세

영아 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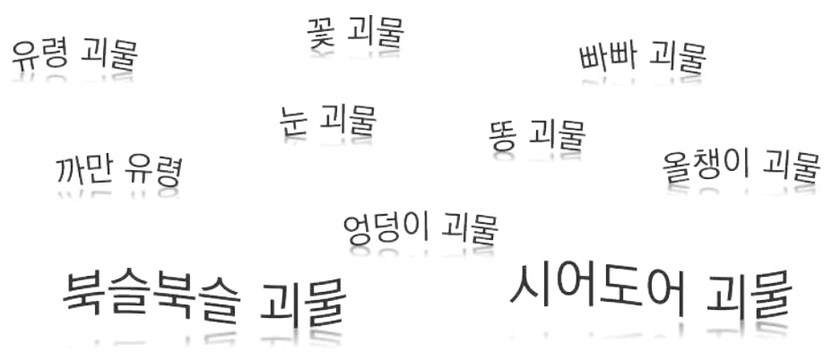
교사는 영아가 들고 온 책을 함께 읽으며 영아의 놀이를 따라간다

오전 간식을 다 먹은 후, 다솜이가 〈괴물이 오면〉 책을 들고 온다. 모여든 영아는 괴물의 생김새를 탐색하며, 생김새와 어울리는 이름을 직관적으로 상상해 본다. 괴물 이름 짓기는 영아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져 간다.

ⓒ 괴물이 오면 | 안정은 글·그림 | 이야기꽃

괴물도 이름이 있어

〈괴물이 오면〉 책을 읽으며 괴물의 이름 짓기를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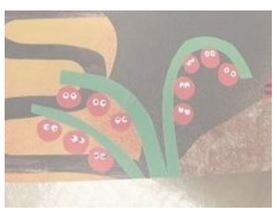
다솜: **유령 괴물**이야. 그리고 여기는 **꽃 괴물**이고, **똥 괴물**이야.
교사: 괴물들이 엄청 많네?
도운: (웃으면서) **엉덩이 괴물**도!
교사: 이 괴물은 눈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열넷!
눈이 엄청 많은 괴물도 있네.
다솜: **올챙이 괴물**이랑, **눈 괴물**이랑…. 하나 둘 셋….
승윤: 여기는 **까만 유령**이네?
교사: 선생님은 옛날에 털이 엄청 **북슬북슬한 괴물**도 봤어.
승윤: 무서웠어?
교사: 응, 조금!
다솜: 이것도 엄청 무서워. 눈이 엄청 많아. **시어도어 괴물**이야.
도운: 시어도어는 원래 눈이 두 개만 있잖아.
교사: 시어도어는 눈이 두 개야? 그럼 이 괴물은 무슨 괴물이라고 할까?
승윤: **빠빠 괴물**, 하하하
보나: **빠빠 괴물**~~~

영호: 이건 무슨 괴물이지?

날아다니는 괴물이야!

재하: 이건 불 괴물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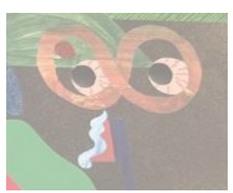
[영호와 재하가 발견하고 이름을 지어준 괴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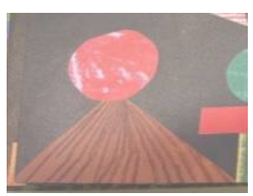
"체리 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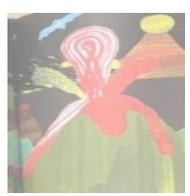
"손 괴물, 날아다니는 괴물"

"나무 괴물"



"눈 괴물"





"화산 괴물"

내가 그 괴물이야

승윤: (웃으며) 괴물 표정이야, 하하하.

교사: 선생님도 괴물 표정 따라 해야지.

승윤이의 괴물 표정에 옆에 있던 다솜이와 아린이는
함께 박장대소를 하며 모두 괴물 표정을 따라 하기 시작한다.

다솜

아린

괴물은 여기 괴물집에 살아

영호: (재하가 가리켰던 빨간 집을 가리키며) 이건 괴물 집 아니야.

(분홍 집을 가리키며) 이게 괴물 집이야.

재하: 여긴 누구 집이야?

영호: 여긴 몬-스터!

재하: (웃으면서) 맞아! 여긴 몬스터 집!

영호: 여긴 깜깜해서 몬-스터 집!

영호: 괴물 집으로 가는 거야.

교사: 괴물 집은 어딘데?

영호: (그림의 창문 밖 그림을 가리키며)

엄청 멀리 있어.

영호: 으으으으으 괴물이다!

근데 얘만 왜 뒤를 보고 있는 거지?

교사: 그러게. 다른 괴물들은 앞을 보고 있는데?

영호: 얘는 어디 가려고 하나 봐.

교사: 어디를 갈까?

영호: (한 장 넘긴 후 같은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 봐! 여기 산도 있어.

영아의 배움

다솜이는 그림책의 괴물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본 특징으로 괴물 이름을 짓고, 괴물이 되는 상상을 한다.
도운이는 또래와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괴물 이름 짓기와 이야기에 즐겁게 참여한다.
승윤이는 똥 괴물, 까만 유령, 빠빠 괴물 등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내며 괴물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괴물을 움직임으로 표현해 또래의 웃음과 모방을 이끈다.
영호는 그림책의 그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단서로 이야기를 만든다.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 그림책 추천사

괴물이 오면 | 안정은 글·그림 | 이야기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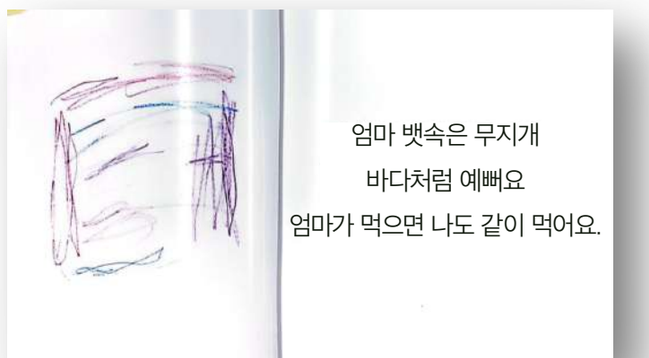
괴물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괴물이 어디 사는지, 어떻게 오는지' 이렇게 계속되는 엄마와 아이의 상호작용 그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무서운 괴물은 오늘 밤 우리 집에 오기 어렵겠다!"라는 엄마의 말(논리적 귀결)에 아이들은 마침내 휴우~ 하고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지요.

- 신혜은 교수 -

말하고, 오리고, 끼적이고, 또 말하며 만드는 이야기

2세

영아 7명



엄마의 보물 | 임주연 글·그림 | 어린이가 직접 만든 책

교사는 형님이 된 영아가 만든 책을 교실에 비치한다

교실에는 지금은 형님이 된 영아가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지어서 만든 책이 비치되어 있다. 우리 반 영아는 이 책을 좋아하며 반복해서 읽는다. 오늘은 '엄마가 먹으면 나도 먹어요'의 장면에 관심을 보인다.

내가 먹은 딸기 이야기

우현이는 딸기를 먹었던 경험을 말하며,
빨간색 종이를 오리며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를 이어 간다.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

"내가 먹었던 딸기는! 길쭉한 씨가 있었어!
길쭉한 뿌리에! 길쭉한 뿌리 딸기야!"

오리고 끼적여서 만든 딸기를 먹어 본다.

내가 오려서 만든 닐슨 이야기

교사는 영아가 다양한 감정을 알아 가고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림책을 비치한다.

여러 감정이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잘 나타나 있어서, 영아의 표현을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며 교실에 비치한다.

ⓒ 성질 좀 부리지 마, 닐슨! | 자카리아 오하라 글·그림 | 소원나무

서준이, 도현이, 다혜는 표정을 따라 하며 책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한다.

도현이와 다혜는
그림책을 함께 보며

말하고, 표정 짓고,

서희는 **오리고,**

정우는
끼적이고,
다시 말하며
이야기를 짓는다.

교사의 배움 지원(자료)

영아는 닐슨이 '그르렁그르렁' 하고 소리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재미있어한다.

↓

영아가 좋아하는 표정과 몸짓이 있는 장면을 복사하여 제공한다. 영아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오리고 끼적이며 남길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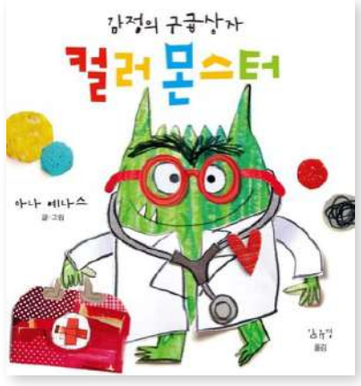
서희: 괴물이 하늘에서 굴러떨어져서
'으아아아~' 하고 있어.

정우: 빨강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거야!
신나게!

불꽃놀이에서 시작된 이야기

교사는 감정과 관련된 책을 한 권 더 비치한다

우리반 영아는 이제 〈감정의 구급상자 컬러 몬스터〉 책을 즐겨 읽기 시작한다. 오늘은 그림책 속 불꽃놀이가 등장하는 장면에 집중한다.



ⓒ 감정의 구급상자 컬러 몬스터 | 아나 예나스 글·그림 | 청어람미디어

긴 선이 서로 교차하는 불꽃놀이 그림에 관심을 가진다.

"나는 이거! 퐁퐁 터지는 거!
이 영상 나 봤어. 밖에서도 퐁퐁 터졌고,
어린이집 밖에서도 팡! 팡! 터졌어."

하린이와 우현이는 종이를 길게 잘라 각자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하린이와 우현이의 이야기는 말, 표정, 몸짓, 움직임 속에서 만들어진다.

하린: 거미는 다리가 엄청 많잖아요.
거미는 무서우니까 피해야 돼~

우현: 길게 길게 잘라서 만들고 싶어.
길쭉길쭉하니까 내가 할 수 있겠어!

"팡팡팡!"

"아무래도! 구급상자를 만드는 게 좋겠어! 여기 다 담자!"

영아의 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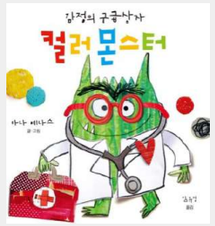
우현이는 그림책을 보며 떠오른 자신의 경험을 말과 오리기, 붙이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이야기 만들기를 즐긴다.
서희는 그림책을 표정과 몸짓으로 즐기며 읽고, 책 속의 그림에서 떠올린 생각을 오리고 끼적이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즐기고 있다.
하린이는 가위로 종이를 길게 잘라 이어 붙이며 자신이 상상한 거미 이야기를 만들고 교사와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 그림책 추천사

성질 좀 부리지 마, 닐슨! | 자카리아 오하라 글·그림 | 소원나무

영유아가 가장 쉽게 마주하는 '짜증'과 '분노'를 숨기거나 억누르지 않고, 이해하고 다루어 볼 수 있도록 감정을 보여 주는 그림책입니다. 영유아의 일상 속 작은 좌절과 불편함을 솔직하게 담아내어,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아직 말과 감정 조절 능력이 충분히 자라지 않았다는 상태임을 보여 줍니다. 이 책은 '성질'을 '나쁜 행동'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감정이 커질 때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림과 이야기로 풀어내어, 영유아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합니다.



감정의 구급상자 컬러 몬스터 | 아나 예나스 글·그림 | 청어람미디어

영유아에게 감정은 변화가 심해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은 기쁨, 슬픔, 화,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구급상자 속 물건에 빗대어 보여 주며, 감정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영유아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림책입니다. 영유아에게 막연하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여러 감정을 '정리하고 돌볼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영유아는 감정을 두려워하기보다 다루어 볼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 연구진 -

“선생님, 내가 그림책 만들어 줄게”

2세

영아 1명

지진 대피 훈련을 마치고,
사운드 북을 즐겨 읽던 하준이가
여러 장의 종이에 빠르게 끼적이고, 종이를 책상에 탁탁 치며 모아
책의 ‘형태’를 만들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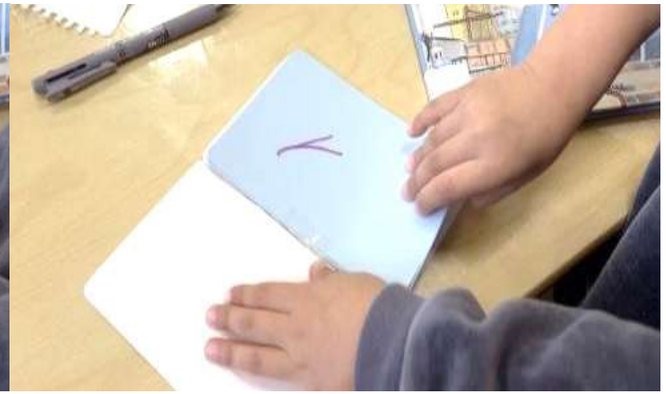
“이제 책으로 만들려면 테이프가 필요해.
(네 면의 테두리를 따라가며)
여기 이렇게 다 붙여야 하는 거야.”

“어, 뭐야? 떨어졌어...”
하준이는 종이의 네 면에 모두 테이프를 붙여
‘진짜 책’처럼 펼칠 수가 없다.

그러자 하준이는 그림책을 펼친다.
“책은 이거 봐 봐. 이렇게... 넘기잖아.”

하준이의 책은 '끼적이기'와 '소리'가 하나가 되어 만들어진다.

"이건 지진 책이야. 지진 소리도 들려.
하준이 집에는 지진 책 두 개나 있어."



"여기가 앞이야.
이 버튼을 누르면 책이 열립니다."
하준이가 그림책을 넘긴다.

"이 책은 좀 짧다.
이거 집에 가서 엄마 보여 줄래."

영아의 배움

하준이는 사운드 북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좋아하는 소리에 집중하며 책을 즐겁게 읽는다. 또한 하준이는 직접 끼적이고, 테이프로 종이를 이어 붙이며, 펼쳐서 볼 수 있는 책의 형태에 대해 알아 가고 있다.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교수·학습 자료는 본 사례집에서 교사가 영아의 그림책 놀이의 배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활용법은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과 모형

'찾았다! 사과' 19

다양한 크기의 종이 상자

'책에서 본 상자를 교실에서 만나다' 33

광목천, 망사천

'몸짓으로 읽어요' 47

영유아용 물감

'맥스처럼 해 볼래요' 53

다양한 색지

'그림책이 퍼뜨린 눈길' 89

그림책을 추천해요!

영유아가 좋아하는 그림책

달님 안녕
(하야시 아키코 저, 한림출판사)

부릉부릉 탈것 사운드북
(샘 태플린 저, 어스본코리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버나뎃 로제티 슈스탁 저, 보물창고)

알사탕
(백희나 저, 스토리보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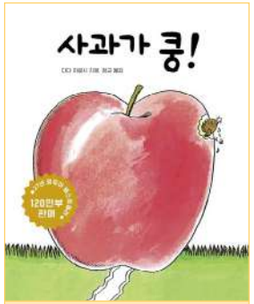
이상한 손님
(백희나 저, 스토리보울)

이상한 엄마
(백희나 저, 스토리보울)

수박 수영장
(안녕달 저, 창비)

화난책
(세드릭 라마디에 저, 길벗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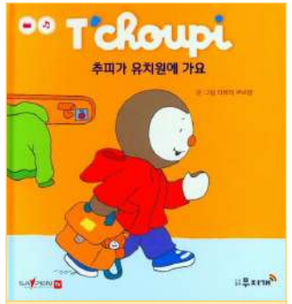
감정 호텔
(리디아 브란코비치 저, 책읽는곰)



사과가 쿵!
(다다 히로시 저, 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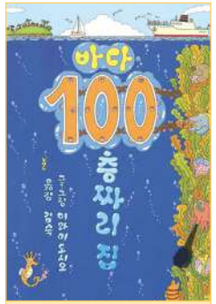
고구마구마
(사이다 저, 반달)

노래로 배우는 우리는 조선왕
(완두콩 저, 키즈엠)



추피 이야기 시리즈*
(티에리 쿠르텡 저, 무지개)

수박씨를 삼켰어!
(하야시 아키코 저, 한림출판사)



바다 100층짜리 집
(이와이 도시오 저, 북뱅크)

네 기분은 어떤 색깔이니?
(최숙희 저, 책읽는곰)

오싹오싹 시리즈
(샘 태플린 저, 어스본코리아)

진짜 진짜 재밌는 그림책 시리즈*
(버나뎃 로제티 슈스탁 저, 보물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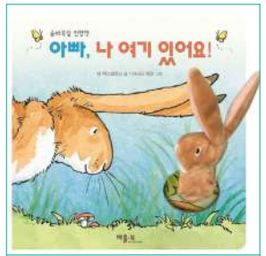
* 책 표지는 대표 1권만 첨부함.

* 책 표지는 대표 1권만 첨부함.

그림책을 추천해요!

우리 반 선생님이 고른 그림책

괴물들이 사는 나라
(모리스 샌닥 저, 시공주니어)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샘 맥브래트니 저, 베틀북)

브로콜리지만 사랑받고 싶어
(별다름·남다름 저, 키다리)

달님 안녕
(하야시 아키코 저, 한림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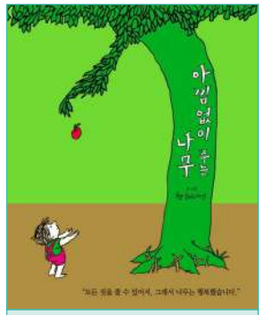
곰 사냥을 떠나자
(마이클 로젠 글, 시공주니어)

쿠키 한 입의 인생수업
(에이미 크루저 로젠탈 저, 책읽는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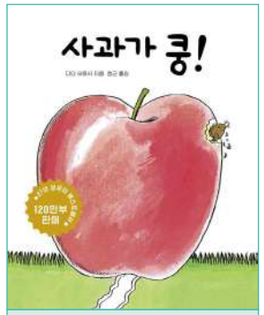
숲 속 재봉사
(최향량 저, 창비)

알사탕
(백희나 저, 스토리보울)

팥빙수의 전설
(이지은 저, 웅진주니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쉘 실버스타인 저, 시공주니어)



사과가 쿵!
(다다 히로시 저, 보림)

수박 수영장
(안녕달 저, 창비)

구름빵
(백희나 저, 스토리보울)

장수탕 선녀님
(백희나 저, 스토리보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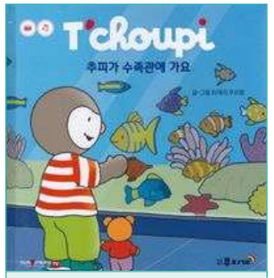
무지개 물고기
(마르쿠스 피스터 저, 시공주니어)

마술 연필
(앤서니 브라운 저, 웅진주니어)

그림책을 추천해요!

우리 반 선생님이 고른 그림책

달 샤베트
(백희나 저, 스토리보울)



추피 이야기 시리즈*
(티에리 쿠르텡 저, 무지개)

이파라파 냐무냐무
(이지은 저, 사계절)

* 책 표지는 대표 1권만 첨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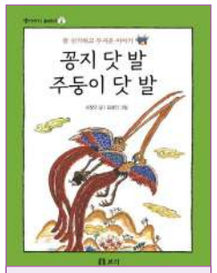
아주아주 배고픈 애벌레
(에릭 칼 저, 시공주니어)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베르너 홀츠바르트 저, 사계절)

파도야 놀자
(이수지 저, 비룡소)

그림책을 추천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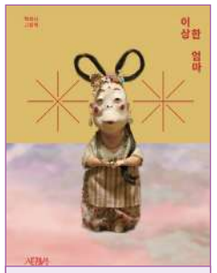
부모님이 말하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



꽁지 닷 발 주둥이 닷 발
(서정오 저, 보리)

안녕, 마음아
(김지연 저, 걸음동무)

아주아주 큰 백과 그림책 시리즈*
(톰 잭슨 저, 예림당)



이상한 엄마
(백희나 저, 스토리보울)

장수탕 선녀님
(백희나 저, 스토리보울)

* 책 표지는 대표 1권만 첨부함.

공룡 시대 체험학습 가는 날
(존 헤어 저, 행복한 그림책)

알사탕
(백희나 저, 스토리보울)

개구쟁이 특공대 시리즈
(유키노 유미코·우에노 요시 저, 꼬마대통령)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베르너 홀츠바르트 저, 사계절)

베베 코알라 시리즈
(그레이트 북스)

* 절판되어 구매할 수 없는 그림책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림책을 추천해요!

사례집에 수록된 그림책

이건 상자가 아니야
(앙트아네트 포티스 저, 베틀북)

빠이빠이 기저귀!
(레슬라 페트리셀리 저, 보물창고)

찾았다! 우리 아기
(이상교 저, 그린북)

과일
(편집부 저, 블루래빗)

우리집에는요
(편집부 저, 훈민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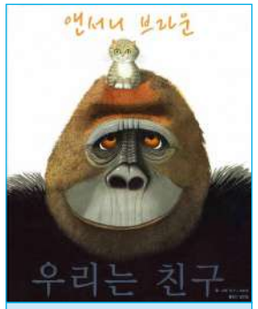
동글동글 동그라미책
(이수연 저, 키즈엠)

까망아, 안녕?
(델피네 셰드루 저, 별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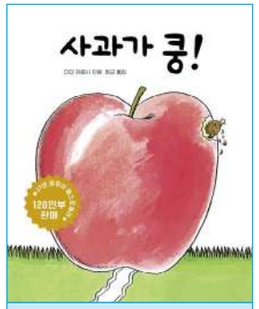
날씨가 좋아
(김미나 저, 그린북)

개미의 수박 파티
(다무라 시게루 저, 비룡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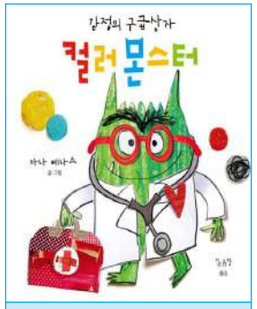
간질간질
(서현 저, 사계절)



우리는 친구
(앤서니 브라운 저, 웅진주니어)



사과가 쿵!
(다다 히로시 저, 보림)



감정의 구급상자 컬러 몬스터
(아나 예나스 저, 청어람미디어)

성질 좀 부리지 마, 닐슨!
(자카리아 오호라 저, 소원나무)

조선왕조실록
(오홍선이 저, M&kids)

엄마가 화났다
(최숙희 저, 책읽는곰)

* 절판되어 구매할 수 없는 그림책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림책을 추천해요!

사례집에 수록된 그림책

사랑해 꼭 안아 줄 시간
(필리스 거셰이터 저, 북뱅크)

기차 ㄱㄴㄷ
(박은영 저, 비룡소)

방귀쟁이 며느리
(한영미 저, 애플비북스)

진짜 대장 이순신
(안선모 저, 다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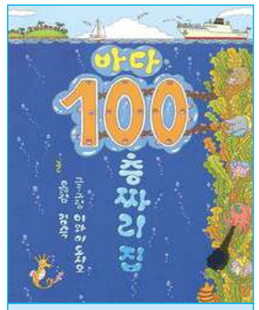
사윗감을 찾아 나선 두더지
(정현수 저, 그레이트북스)

아트와 맥스
(데이비드 위즈너 저, 시공주니어)

낱말 수집가 맥스
(케이트 뱅크스 저, 보물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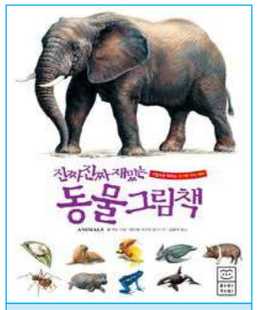
사과와 나비
(이엘라 마리·엔조 마리 저, 보림)

아주아주 배고픈 애벌레의 숨바꼭질 놀이 눈 오는 날
(에릭 칼 저, 시공주니어)



바다 100층짜리 집
(이와이 도시오 저, 북뱅크)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그림책
(벤야민 고트발트 저, 초록귤)



진짜 진짜 재밌는 동물그림책
(톰 잭슨 저, 라이카미)

진짜 진짜 재밌는 곤충그림책
(수진 바라클로우 저, 라이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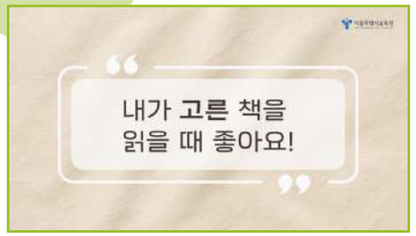
세계 귀신 지도책
(페더리카 마그렐 저, 꿈터)

오싹오싹 크레용!
(에런 레이놀즈 저, 토토북)

괴물들이 사라졌다
(박우희 저, 이야기꽃)

괴물이 오면
(안정은 저, 이야기꽃)

영유아



내가 고른 책을 읽을 때 좋아요!

영유아가 "나는 ○○라서 이 책이 좋아."라고 말하며 자신이 선택한 책과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다. 영아와 유아 모두 각자의 경험과 관심을 바탕으로 책을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영유아의 주체적인 책 선택을 조명한다.

동영상 링크 [영유아] 내가 고른 책을 읽을 때 좋아요!

영아

동영상 링크 [영아 편] 그림책 함께 읽기로 보육과정 실행하기

영아는 세상에서 그림책을 만났다가, 그림책으로 세상을 만난다

영아 편 사례집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영상으로, 영아가 일상의 경험 속에서 그림책을 만나고, 다시 그림책을 통해 세상을 확장해 가는 과정을 조명한다.

영아의 다채로운 책 읽기

영아가 책을 읽는 다양한 방식에 주목한 영상으로, 영아가 손으로 만지고, 시선으로 따라가며, 몸 전체로 반응하는 읽기 경험을 소개한다. '영아는 책을 읽지 못한다'는 인식을 넘어, 영아만의 적극적인 책 읽기 방식을 보여 준다.

그림책은 함께 읽는 것 – 영아 편 –

영아반 교사의 실제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사례와 교사 인터뷰를 담은 영상이다. 영아의 시선과 손짓을 따라가며 책을 읽는 방식, 영아의 경험과 연결 지어 그림책을 읽는 교사의 실천을 통해, '함께 읽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며, 영아와 함께 책을 읽어 가는 방법에 대한 실천과 고민이 담겨 있다.

물감 놀이, 그림책과 만나다

사례집에 수록된 물감 놀이 사례를 영상으로 구성한 자료로, 그림책이 미술 놀이와 만나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그림책 속 장면과 이야기가 물감 놀이로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 그림책 놀이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아

동영상 링크 [유아 편] 그림책 놀이로 교육·보육과정 실행하기

그림책 놀이로 성장하는 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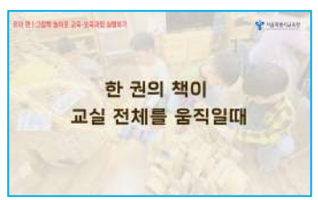
유아 편 사례집 전체를 아우르는 영상으로, 그림책과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의 놀이와 배움 과정을 조망한다. 사례집의 큰 제목과 소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를 사진과 함께 풀어내며, 그림책이 유아의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림책은 함께 읽는 것 - 유아 편 -

유아반 교사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사례와 교사 인터뷰를 담은 영상이다. 유아의 경험과 연결 지어 책을 읽는 방식, 실감 나게 그림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확장하는 교사의 실천을 통해, 교사의 읽기 방식이 그림책을 어떻게 '살아나게' 만드는지를 보여 준다. 책을 읽을 때의 질문, 경청, 함께 읽는 방법에 대한 교사의 고민과 실천이 담겨 있다.

선생님의 고민, 책을 즐기지 않는 유아

교사 인터뷰를 통해, 그림책 읽기와 놀이를 실천하며 느낀 고민과 어려움 그리고 배움을 솔직하게 나누는 영상이다. 교사의 시선에서 그림책 읽기와 그림책 놀이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모습과 고민을 공유한다.



한 권의 책이 교실 전체를 움직일 때

유아가 좋아하는 그림책 '바다 100층짜리 집'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블록놀이, 역할놀이, 만들기, 동극으로 이어지는 교실 전체의 놀이 과정을 담은 영상이다. 한 권의 그림책이 교실의 놀이 흐름을 어떻게 움직이고 확장시키는지를 보여 준다.

유아의 손끝에서 새로워지는 이야기

곧 버려질 그림책(폐도서)의 그림을 오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유아의 책 놀이 사례를 담은 영상이다. 유아의 손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점점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학부모

동영상 링크 [부모교육자료]

서현 작가의 영상 편지

그림책 '간질간질'의 작가 서현이 전하는 영상 편지로, 교사와 부모들이 자주 느끼는 '그림책 읽기의 어려움'에 대해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영유아의 그림책을 어떻게 함께 읽을 수 있는지, 그림책을 부담 없이 즐기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교사와 부모 모두에게 그림책 읽기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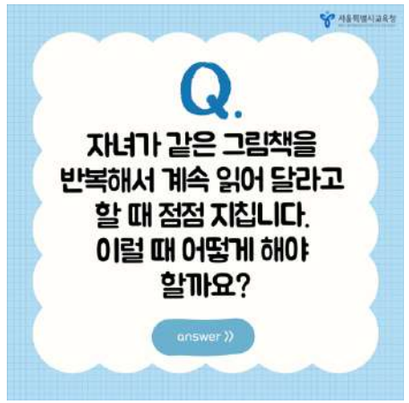
학부모는 이런 점이 궁금해요! 그림책 읽기 FAQ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학부모의 그림책 읽기 관련 고민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한 영상이다. 학부모의 실제 질문 6개를 바탕으로, 그림책 읽기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을 풀어내며, 가정에서의 그림책 읽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질문1. 매번 같은 책만 읽으려고 해요.
질문2. 우리 아이는 책을 읽을 때 집중하지 못해요.
질문3. 아이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 해야 하나요?
질문4. 책을 순서대로 보지 않는데 괜찮을까요?
질문5. 우리 아이는 그림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질문6.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이 궁금해요.

본 카드 뉴스는 부모님이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책 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가정연계 부모교육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1



자녀가 같은 그림책을 반복해서 계속 읽어달라고 할 때 점점 지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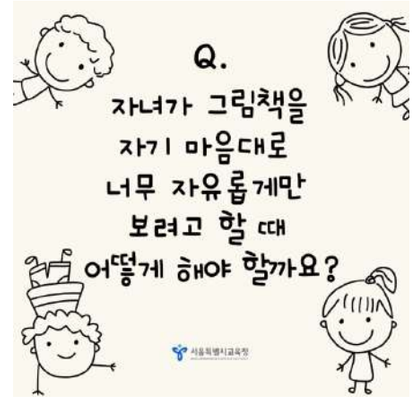
카드뉴스 2

그림책을 하나만 좋아하고, 다양한 책을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카드뉴스 3

자녀가 그림책에 집중을 못하고 딴 말로 관심을 돌리려고 할 때 어떻게 그림책에 더 몰입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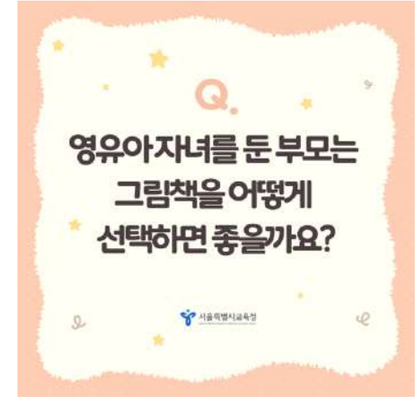
카드뉴스 4



자녀가 그림책을 자기 마음대로 너무 자유롭게만 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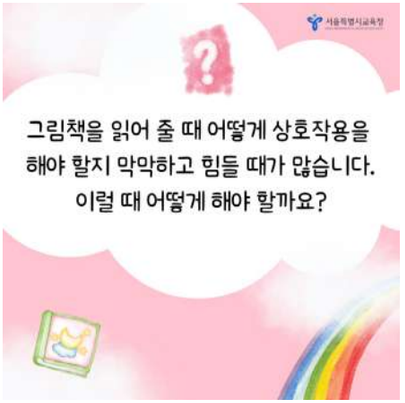
카드뉴스 5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은 그림책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영상

카드뉴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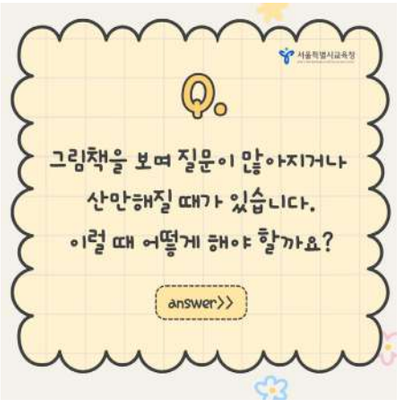
그림책을 읽어줄 때 어떻게 상호작용 해야 할지 막막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

카드뉴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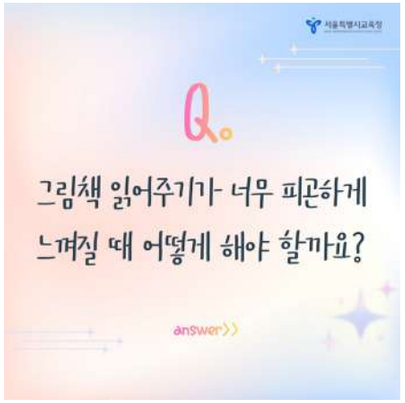
영유아가 부모가 그림책 읽어줄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카드뉴스 8



그림책을 보며 질문이 많아지거나 산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드뉴스 9



그림책 읽어 주기가 너무 피곤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드뉴스 10

자녀가 그림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림책 읽기를 즐거워 할 수 있을까요?

영상

* 2, 3, 5, 6, 10번 내용은 동영상 자료 '학부모는 이런 점이 궁금해요! 그림책 읽기 FAQ'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북스타트 코리아 https://bookstart.org/	북스타트(Bookstart)는 영유아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책과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지원하는 영유아 독서 문화 운동이다. 그림책이 담긴 책 꾸러미를 매개로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책을 읽고 상호작용 하는 경험을 중시하며, 가정·도서관·지역사회가 함께 영유아의 초기 읽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기부터의 책 경험이 일상의 관계와 배움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삶과 발달 특성을 존중하는 독서 접근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서울북스타트 https://lib.seoul.go.kr/rwww/html/ko/bookStart.jsp	서울시 북스타트사업은 영유아와 보호자가 책과 함께 생애 초기부터 읽기 경험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공공 독서 문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서울시가 '서울북스타트' 사업을 추진하여 25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영유아 대상 책 꾸러미 배부와 연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도서연구회 https://childbook.org/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의 가치를 연구하고, 좋은 책을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어린이 그림책과 청소년 도서를 대상으로 한 서평과 추천 목록, 주제별 도서 안내를 제공하며, 책을 실제로 읽고 활용해 온 현장 교사의 경험과 관점을 바탕으로 한 글이 축적되어 있다. 어린이의 삶과 배움을 중심에 두고 책을 바라보는 시선을 살펴볼 수 있다.
학교도서관 저널 https://www.slj.co.kr/shop/	아동과 청소년 도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서 및 교육 분야 저널로, 그림책을 포함한 다양한 어린이 그림책에 대한 신간 소개와 비평, 추천 정보를 제공한다. 교과 및 주제와 연계한 도서 큐레이션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교사와 사서, 교육 현장에서 책을 활용하는 이들을 주요 독자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 서울시 어린이도서관 목록

기관명(ㄱㄴㄷ순)	설명
가온도서관 어린이자료실	• 사이트: https://www.junggulib.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4길 18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사이트: http://www.nlcy.go.kr/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1
궁동어린이도서관	• 사이트: http://lib.guro.go.kr •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352
꿈꾸는어린이도서관	• 사이트: http://lib.gangseo.seoul.kr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15
꿈나래어린이도서관	• 사이트: https://www.songpa.go.kr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05
길꽃어린이도서관	• 사이트: http://lib.gangseo.seoul.kr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24길 5
글마루한옥어린이도서관	• 사이트: http://lib.geumcheon.go.kr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남산타운어린이도서관	• 사이트: https://www.junggulib.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노원어린이도서관	• 사이트: https://www.nowonlib.kr •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대방어린이도서관	• 사이트: https://blog.naver.com/djchlb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길 55
도봉문화정보도서관어린이자료실	• 사이트: https://www.unilib.dobong.kr •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아이나라도서관	• 사이트: http://www.unilib.dobong.kr/ •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51
동대문구립용두어린이도서관	• 사이트: https://www.ddmlib.or.kr •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89
마포중앙도서관어린이자료실	• 사이트: https://mplib.mapo.go.kr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28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 사이트: https://library.gangnam.go.kr/hchildlib/index.do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7길 3

기관명(ㄱㄴㄷ순)	설명
방학동어린이도서관	• 사이트: https://www.unilib.dobong.kr •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73
삼각산어린이도서관	• 사이트: https://www.gblib.or.kr/kids/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9길 34
서울상상나라 도서관	• 사이트: https://www.seoulchildrensmuseum.org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 사이트: http://childlib.sen.go.kr//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9길 7
서초구 그림책 도서관	• 사이트: https://picturebook.seocholib.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50
성북어린이도서관	• 사이트: https://www.sblib.seoul.kr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
아리랑어린이도서관	• 사이트: https://www.sblib.seoul.kr/arclib/index.do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75
아현어린이도서관	• 사이트: https://mplib.mapo.go.kr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
용마루 어린이 도서관	• 사이트: https://www.yslibrary.or.kr/yongmaru/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37길 1
은평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 사이트: https://www.gsvlib.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3길 29-23
응암정보도서관 어린이자료실	• 사이트: https://www.epplib.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76
이문어린이도서관	• 사이트: https://www.l4d.or.kr/imc/index.do •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장산로9길 68
장안어린이도서관	• 사이트: https://www.l4d.or.kr/jac/index.do •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6다길 10
종암동새날어린이도서관	• 사이트: https://www.sblib.seoul.kr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9길 60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어린이도서관	• 사이트: https://littlelibro.kr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18길 11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 사이트: https://blog.naver.com/lib_tongin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3길 20

그림책 함께 읽기로 보육과정 실행하기 1. 영아 편

기 획 배선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단장
심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장학관
이혜란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장학사

연구책임자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안소영 인덕대학교 교수
안지혜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민행난 반포퍼스티지하늘어린이집 원장
신강은 서울미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보조연구원 함재영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보 조 원 윤조현 숙명여자대학교
위형은 숙명여자대학교
김 윤 숙명여자대학교

협력기관 반포퍼스티지솔마을어린이집
반포퍼스티지하늘어린이집
현대양재어린이집

협력교사 김남효 LX세미콘직장어린이집 교사
홍주영 반포퍼스티지솔마을어린이집 원장

그림책 추천사 신혜은 경동대학교 교수

동영상 자료 출연: 김남효, 김두겸, 남은지, 전계성, 전영미, 조현정
촬영 및 편집: 함재영
최종 편집: 라스트라다

디 자 인 지뮤즈디자인

본 자료는 무단 전재·복제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발 행 일 2026년 9월
발 행 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04335)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발행번호 서울교육 2026-108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